차 례

머 리 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조선력사를 연구하는 중요한 목적은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앎으로써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자는데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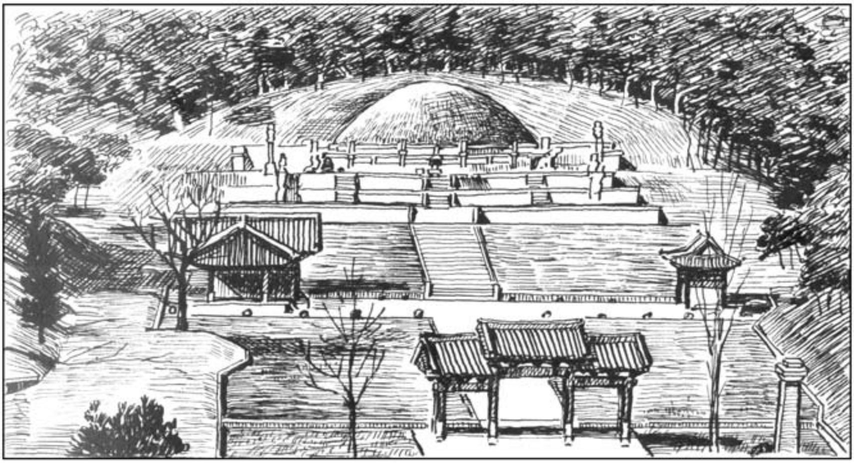
우리는 1학년에서 고조선으로부터 발해까지의 력사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과 인물, 문화의 내용들을 배우면서 조선민족은 참으로 슬기롭고 용감하고 지혜롭다는것을 깊이 느끼게 되였습니다.

2학년 조선력사에는 발해 다음에 세워진 고려와 리조봉건국가《조선력사》의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있습니다. 여기서는 고려와 리조봉건국가가 어떻게 섰는가, 고려인민이 봉건몽골과 일본해적무리의 침략을 어떻게 물리쳤는가, 일본놈들과 미국놈들이 어떻게 옛날부터 우리 나라를 침략해왔으며 우리 인민은 놈들을 반대하여 어떻게 싸웠는가, 조선의 자랑인 고려자기, 화약, 측우기, 금속활자, 훈민정음, 거북선 등은 어떻게 발명하고 만들었는가 하는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 외래침략자들과 굴함없이 싸워온 우리 인민의 불굴의 애국정신에 대한 자랑, 창조적재능이 뛰여난 민족으로서의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여야 합니다.

제 1과. 첫 통일국가를 세운 왕건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개성(개경)에 고려의 첫 왕인 왕건의 무덤이 새로 웅장하게 꾸려졌습니다.



왕 건 릉

왕건은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첫 통일국가였던 고려를 세운 왕이였습니다.

그가 우리 나라 력사에 남긴 큰 공적의 하나는 같은 겨레의 여러 나라들을 하나로 통합하려던 고구려사람들의 지향을 계승하여 완성한것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동족의 나라들을 하나로 통합하려던 고구려의 지향은 10세기초에 창건된 고려에 의하여 계승되였다.》

본래 왕건은 오늘의 개성지방의 큰 봉건세력이였는데 처음에는 오늘의 강원도 철원지방을 중심으로 세워졌던 태봉국왕 궁예의 부하로 들어가 군대에 복무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자기 세력이 강해지자 왕건은 궁예의 포악한 정치에 불만을 품고 918년 6월 어느날 정변을 일으켜 궁예를 왕자리

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였습니다.

이때부터 나라이름을 고려라고 불렀습니다.

고려라는 이름은 지난날 우리 민족의 력사에서 제일 강대하였던 고구려를 이은 나라라는 뜻입니다.

정권을 잡은 왕건은 다음해에 수도를 개경(개성)으로 옮기였습니다.

그리고 강토와 인민을 하나로 통일하여 옛날 고구려와 같은 강대한 나라를 세울것을 기본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여러개로 갈라져있던 나라들을 하나로 통일하자면 무엇보다 나라의 힘을 튼튼히 키우면서 자기의 지지자들을 많이 얻어야 하였습니다.

그는 인민들로부터 환심을 사기 위하여 지나친 국가의 착취를 조절하는 한편 여러 지방의 봉건세력들을 자기 두리에 묶어세우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령토를 서북쪽으로 넓혀나가면서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을 정치의 중심지로 새로 꾸려나갔습니다.

이것은 고구려의 옛땅을 되찾기 위한 투쟁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 고려북방의 정세가 갑자기 긴장해졌습니다.

그것은 랴오하상류지방에 자리잡고있던 거란침략자들이 동쪽으로 세력을 뻗치면서 우리와 같은 겨레의 나라인 발해를 멸망시키고 고려를 먹겠다고 덤벼들었기때문이였습니다.

새로운 정세밑에서 왕건은 북쪽으로부터 달려드는 거란침략세력을 막아내면서 고려에로 찾아들어오는 발해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시기 약 10만명의 발해사람들이 고려에로 찾아왔는데 고려에서는 그들을 북쪽변방지방에 안착시켜놓고 집과 식량, 토지도 주고 귀족들에게는 벼슬도 주었습니다.

이것은 나라와 민족을 하나로 통합시키는데서 중요한 정책의 하나였습니다.

왕건은 나라의 힘이 강화되자 남쪽에 있던 신라와 후백제를 통합하기 위한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밀고나갔습니다.

이때 고려가 신라와 후백제를 통합하는데서 실시한 정책은 서로 달랐습니다.

왕건은 신라에 대하여서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너그럽게 포섭하여 끌어당기는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때 신라왕은 모든 정세로 보아 앞으로 고려에 의하여 국토가 통일될것이 명백하다고 생각하고 고려에 투항할 결심을 내리였습니다.

그리하여 신라의 마지막왕이였던 경순왕은 935년 11월에 많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부하들과 함께 개경(개성)으로 찾아와 왕건에게 항복하였습니다.

결과 신라봉건국가는 멸망하고 그 령토는 고려에 통합되였습니다.

신라를 통합한 후 왕건은 후백제를 통합하기 위한 마지막싸움을 준비하였습니다.

후백제에 대한 왕건의 정책은 처음부터 무력으로 대결하는것이였습니다.

936년 9월 어느날 왕건이 직접 거느린 8만 7 000명의 고려군은 경상북도 선산에서 후백제군과의 마지막판가리싸움을 벌렸습니다.

싸움이 시작되자 왕건이 거느린 고려군사들은 북을 치면서 일제히 공격을 들이대여 후백제군을 쳐부셨습니다.

고려군은 이 싸움에서 거의 1만명이나 되는 후백제군을 죽이거나 사로잡았습니다.

이리하여 고려의 첫 왕인 왕건은 여러개로 갈라져있던 우리 나라를 하나로 통합하여 첫 통일국가를 세웠습니다.

나라가 하나로 통일된 때로부터 우리 인민은 하나의 국가테두리안에서 살면서 자기 나라의 자랑찬 력사와 문화를 창조해나갈수 있게 되였습니다.

나라가 하나로 통합된 이후시기 우리 나라의 경제와 문화는 매우 발전하였습니다.

이때 생산된 고려비단, 고려자기, 고려종이 등은 천하명물로 세상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또한 세계에서 처음으로 금속활자를 발명하여 책출판에 널리 리용함으로써 세계출판업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리하여 고려시기 우리 나라의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였는데 오늘 세상사람들이 우리 나라를 까레야(로어), 코리어(영어), 코레아(도이췰란드어)라고 부르는것은 바로 고려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제 2 과. 강화담판으로 적들을 물러가게 한 서희장군

우리 나라의 첫 통일국가 고려가 세워진지 75년세월이 지난 때였습니다.

압록강건너 중국땅에 있던 거란이라는 나라가 993년 10월 수십만의 군대로 고려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거란침략자들은 고려군대와 인민들로부터 얻어맞고 청천강 건너편으로 쫓겨갔습니다.

놈들은 군사적힘만으로는 고려를 이길수 없다고 생각하고 담판을 하자고 제기해왔습니다.

이렇게 되여 고려정부에서는 강화담판에 나갈 대표를 뽑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과연 누가 수십만군사를 끌고 들어와 거만하게 호통치는 소손녕(거란군의 우두머리)과 당당하게 담판을 벌려 놈들을 쫓아버리겠는가?

적들이 담판을 하자고 하지만 우리 대표를 붙잡아 어떻게 하려는지 속심을 잘 알수 없는 일이여서 누구도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가 거란군의 군영으로 가서 림기응변의 지략으로 적군을 물러가게 하여 만대의 공을 세우겠는고?》

초조한 국왕의 목소리가 울렸으나 방안은 여전히 조용하였습니다.

… 제발 나만은 좀 …

몇몇 대신들은 혹시 자기 이름이 짚이지나 않을가 하여 가슴을 조였습니다.

그들은 머리를 숙이고 숨도 크게 쉬지 못하였습니다.

이때였습니다.

《소신이 비록 불민하나 상감의 령을 받들어 그 일을 맡아나설가 하나이다.》

무거운 침묵을 깨뜨리며 일어선 대신은 바로 서희장군이였습니다.

금시 팽팽하던 긴장감이 풀리고 사람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였습니다.

모두들 그가 적임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서희장군이 소손녕과 담판하기 위하여 거란군영으로 떠나게 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소손녕은 으리으리한 기와집에 틀고앉아 고려대표가 오거든 뜰아래에서 절을 해야 한다는 거만한 요구를 내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서희장군은《소손녕은 인사법도 모르는 어린애 같은 사람이니 어찌 우리와 담판할 대상이 되겠는가.》하면서 아예 그놈을 만나지도 않고 돌아갈것처럼 배짱을 내댔습니다.

이에 겁이 난 소손녕은 자기 요구를 거두고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담판은 고려측의 주장대로 두 나라 대표가 대등한 립장에서 진행되게 되였습니다.

담판이 시작되자 소손녕은 공연히 수염을 내리쓸고 헛기침을 하면서 또다시 위세를 부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렵고 초조한 그의 속심은 뻘개지는 얼굴에 다 드러났습니다.

《에, 당신들은 왜 우리 거란이 이미 고구려의 옛땅을 다 차지하고있는데 그곳으로 세력을 뻗치려고 하는가, 이것이 침략기도가 아닌가? 또 국경을 같이한 우리와는 친하게 지내지 않고 멀리 송나라와만 사귀여 지내는가, 당신들이 차지한 고구려땅을 내놓고 또 우리와 국교를 가진다면 당신네 나라는 무사할것이요.》

소손녕이 엉터리없는 요구를 내댔습니다.

서희장군은 어처구니가 없어 호탕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갑자기 웃음을 뚝 끊은 그는《여보시오!》하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적장을 부른 다음 서리발같은 눈길로 그놈의 상통을 뚫을듯 쏘아보았습니다.

《고구려 옛땅을 고구려후손들이 차지하는게 옳은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차지하는게 옳은가, 당신네가 고구려후손인가, 우리 고려가 고구려후손인가, 당신은 이것부터 대답해보시오.》

서희장군의 이 말에 소손녕은 너무도 뻔한 리치여서 대답을 못하였습니다.

서희장군은 거침없이 련속 들이댔습니다.

《우리는 나라이름도 고구려를 계승하여 고려라 하였소. 당신네 나라야 거란이 아니요, 그러니 거란이 고구려 옛땅을 차지하는것이야말로 침략이 아니고 무엇이요. 그런즉 지금의 랴오양땅도 우리 고려의것이요.》

《그, 그거야 우리 거란이 거기서 …》

소손녕은 《거기서》 거란이 세워졌다고 말하려다가 그만 말문이 막히고말았습니다.

《다음, 우리가 어느 나라와 국교를 가지는가는 우리 마음대로지 당신네가 시비할것이 아니다. 설사 당신들과 관계를 맺자 해도 지금 녀진인들이 고려와 거란사이에 틀고앉아 길을 막고있다. 그들을 당신들이 쫓아내라. 그러면 두 나라가 화친관계를 맺을수 있지 않는가.》

소손녕은 더 할 말이 없게 되였습니다.

할수없이 그는 담판내용을 자기 나라 왕에게 그대로 보고하였습니다.

보고를 받은 거란왕도 서희장군의 정당한 주장을 꺾을수가 없어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고려－거란사이의 강화담판은 고려의 승리로 끝나고 거란침략군은 쫓겨가지 않을수 없게 되였습니다.

강화담판에서 실패한 소손녕은 서희장군의 환심을 사려고 성대한 잔치를 차렸습니다.

그러나 서희장군은 점잖은 자세로 그것을 사양하였습니다.

《대신령감께서는 매우 고정하십니다. 두 나라 대신들이 국가간의 중대한 문제로 회담을 하고 어찌 그냥 헤여지리오.》

소손녕은 간청하다싶이 하여 서희장군을 대접하였습니다.

그리고 락타 10마리, 말 100마리, 양 1 000마리, 비단 500필 등 많은것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것은 서희장군의 높은 인품에 탄복한데도 있고 또 저들이 퇴각할 때 가만놔두기를 바래서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담판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서희장군을 국왕과 많은 정부관리들, 고려군장병들이 강가에까지 마중나와 열렬히 환영하였습니다.

제3과. 구주싸움과 강감찬장군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고려사람들은 수십만의 거란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명장 강감찬장군의 지휘밑에 압록강과 구성에서 적들에게 섬멸적인 타격을 주고 나라를 수호하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근 1 000년전에 압록강과 구성에서는 강감찬장군의 지휘밑에 세번째로 우리 나라에 쳐들어온 거란침략자들을 물리치는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1018년 12월 적장 소배압은 10만명의 날랜 기병으로 구성된 대부대를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왔습니다.

적들의 속심은 당시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개성)으로 들어오는 도중에 될수록 싸움을 하지 않고 개경까지 빨리 쳐들어와 국왕의 항복을 받아보자는것이였습니다.

이때 적의 기도를 미리 알아차린 고려정부에서는 강감찬장군을 전선사령관으로 임명하여 적을 막도록 하였습니다.

강감찬장군은 적들을 치기 위하여 20여만의 군대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사들과 인민들을 동원하여 적들이 꼭 지나가야 할 길목에 있는 흥화진(피현군 당후리)의 강을 소가죽으로 막게 하였습니다.

물을 많이 잡아놓았다가 적들이 강을 건늘 때 물막이를 터쳐 놈들을 몽땅 물에 빠뜨려죽이자는것이였습니다.

때마침 적들의 기본대렬이 물막이가 있는 밑에서 강을 건느려고 강복판에 들어섰습니다.

이 순간 고려군사들은 물막이를 터치였습니다.

세찬 물결이 사정없이 침략자들을 내리덮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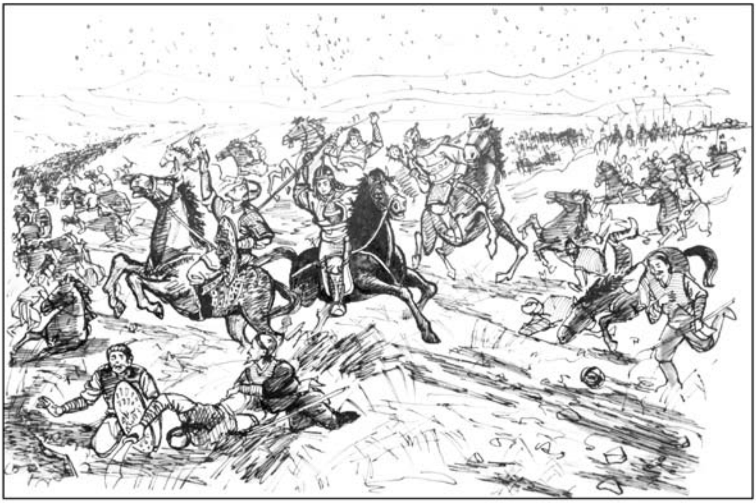
침략자들은 살아보겠다고 아우성을 치며 허우적거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강물에 들어섰던 놈들은 모두 물귀신이 되고말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나머지 적들은 물막이 웃목에서 강을 건너 남쪽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적들은 계속 개경(개성)으로 쳐들어오자는것이였습니다. 그러나 적들은 오늘의 신계까지 내려와서는 더 전진하지 못하고 주저앉고말았습니다.

그것은 강감찬장군의 지휘밑에 개경부근의 방어가 튼튼히 갖추어져 공격하기가 힘들뿐아니라 먹을것은 더 말할것도 없고 물 한모금 얻어먹을수가 없었기때문이였습니다.



거란침략자들을 족치는 고려군사들

고려에서는 적들에게 골탕을 먹일 작정으로 놈들이 지나갈수 있는 모든 곳에서 집짐승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우물들을 다 메워버리도록 하였던것입니다.

소배압은 무서운 죽음의 함정속에 빠져들어온것 같은감을 느꼈습니다. 불안과 공포속에 떨던 그놈은 하는수없이 곧 퇴각명령을 내렸습니다.

적들은 살구멍을 찾겠다고 헤덤비면서 무질서하게 달아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개경을 지키던 한 부대가 적들의 뒤꼬리를 바싹 따르면서 적들로 하여금 하루밤도 편안히 쉴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강감찬장군은 달아나는 적들을 구주(구성)부근에서 모조리 족칠 새로운 작전을 짰습니다.

강감찬장군은 고려군사들을 구주계선에 집결시켜 대포위진을 친 다음 적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였습니다.

1019년 2월초 맥빠진 적의 행군대렬이 구주성앞에 있는 석천골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바로 이때 원쑤들을 모조리 족치라는 강감찬장군의 명령이 내렸습니다.

돌격을 알리는 북소리와 뿔나팔소리가 울리자 구주성의 앞뒤골짜기에서는 고려군사들이 홍수처럼 쏟아져내렸습니다.

그러나 적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이른 적들은 함정에 빠진 승냥이처럼 이발을 사려물고 달려들었습니다.

고려군사들과 침략자들간에는 치렬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때 개경으로부터 적의 뒤를 따르던 고려군이 침략자들의 뒤통수를 답새겨댔습니다. 고려군은 온 강산이 들썩하게 《와!》하는 고함소리를 내며 달려나갔습니다.

앞뒤에서 울리는 고려군의 함성에 얼혼이 나간 적들은 이리뛰고 저리뛰다가 고려군사들의 창칼에 맞아 거의 소멸되고말았습니다.

어지러운 적들의 시체와 군마, 무기들이 구주부근의 넓은 들판에 한벌 쭉 깔렸습니다.

이리하여 고려를 단숨에 먹어보려고 압록강을 건너왔던 10만의 적들은 거의다 죽고 겨우 수천명만이 목숨을 건져 도망쳤습니다.

거란왕은 너무나도 화가 나서 고려군을 얕보고 국내깊이까지 쳐들어갔다가 10만의 군사를 다 잃은 제놈의 졸개 소배압에게 내앞에 네놈이 나타나면 당장 네 껍질을 벗겨 죽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우리 나라 력사에서 구주대승리라고 불리우는 이 싸움은 고려군대와 인민의 용감한 투쟁과 강감찬장군의 능숙한 전략전술에 의하여 승리할수 있었습니다.

강감찬장군이 전쟁에서 이기고 개경(개성)으로 돌아오자 국왕은 멀리까지 마중나와 환영하였으며 연회를 크게 차리고 그를 위로하였습니다.


강감찬

거란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싸움에서 발휘한 고려군사들과 인민들의 용감성과 강감찬장군의 군사적지략은 우리 인민의 자랑찬 반침략투쟁력사와 더불어 길이 전하여지고있습니다.

제 4 과. 세계에서 처음으로 만든 금속활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고려사람들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금속활자를 발명하여 출판업을 크게 발전시키고 색과 문양, 모양이 특출하여 세상사람들이 보물처럼 여기는 고려자기를 만들어내여 우리 나라의 명성을 온 세상에 떨쳤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에 어느 한 나라의 수도에서는 책을 출판하는데 널리 쓰이고있는 금속활자를 어느 나라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발명하였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국제과학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 토론회에서는 모든 학자들이 세계에서 금속활자를 처음으로 만든것이 고려라는것을 과학적으로 밝혔습니다.

고려사람들이 금속활자를 처음으로 발명하여 그것을 책출판에 리용한것은 지금으로부터 860여년전이였습니다.

일찍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봉건문화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많은 책들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종이에다 붓으로 글을 써서 책을 만들다가 점차 나무판인쇄방법을 써왔습니다.

나무판인쇄는 도장을 새기듯이 결이 고운 나무판자우에 글 쓴 종이를 뒤집어 붙이고 글자가 없는 부분들을 칼로 파내여 글자판을 만든 다음 그우에 먹을 발라 찍어내는 방법이였습니다.

고려에서는 처음부터 이러한 나무판인쇄방법을 널리 써서 많은 책들을 찍어냈습니다.

그가운데서 대표적인것이 《대장경》이라는 책입니다.

이렇게 고려에서 여러 종류의 책들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소문을 들은 송나라(중국)에서는 무려 128종류의 500여권이나 되는 책

을 보내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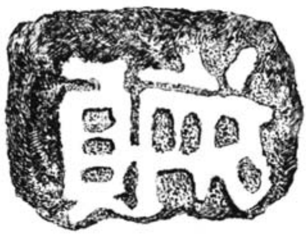
고려에서는 이러한 나무판인쇄방법으로 많은 책들을 찍어내고 있었지만 그것은 자재와 로력이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부족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꾸준한 연구를 거듭하던 끝에 고려사람들은 글자들을 한자한자 따로 떼여 만든 나무활자를 새로 창안하여 책을 찍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무판인쇄방법보다 우월하기는 하지만 나무활자의 글자획이 인차 닳아 없어지는 부족점이 있었습니다.

… 어떻게 하면 한번 만든 활자를 오래 쓰면서 많은 책을 찍어낼수 있을가? …

오랜 세월을 두고 생각을 거듭하던 고려사람들은 이번에는 구리돈에 글자를 새겨넣는 방법과 꼭같은 방법으로 금속활자를 만들수 있지 않겠는가를 생각하게 되였습니다.


금속활자

그때 고려에서는 청동(놋쇠)으로 글자가 새겨진 돈을 부어만들어 쓰고있었는데 그 방법은 금속활자를 만드는 방법과 꼭 같았습니다.

그때 금속활자를 만든 방법을 보면 먼저 결이 고운 도장나무에 한자씩 글자를 새겨 나무도장을 만든 다음 그것을 보드라운 모래와 진흙을 골고루 섞어 이겨놓은 진흙모래판우에 찍어서 활자거푸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다음 거기에 청동을 녹인 쇠물을 부어 청동활자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고려사람들이 만들어 쓰던 금속활자가 개성 만월대 왕궁터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고려시기 우리 선조들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금속활자를 만들어 쓰기 시작한것은 큰 의의를 가집니다.

그것은 우선 금속활자의 발명이 우리 인민의 창조적지혜와 재능을 잘 보여주는 큰 자랑으로 된다는것입니다.

일부 유럽나라들에서 자기네들이 제일먼저 금속활자를 만들어

썼다고 자랑하여 왔지만 그것은 우리 나라보다 300년이나 뒤떨어진것입니다. 이것은 인쇄기술분야에서 우리 선조들이 매우 앞서 발전하였다는것을 보여줍니다.

금속활자의 발명이 가지는 의의는 또한 우리 선조들이 세계출판업발전에 크게 이바지한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고려시기에 금속활자를 처음으로 발명하였을뿐아니라 15세기에는 지금 세계에서 널리 쓰이는 연활자도 발명하여 리용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민은 고려시기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금속활자를 발명하여 세계출판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랑을 가지고있습니다.

제 5 과. 천하의 보물 고려자기

지금으로부터 몇백년전 어느 한 나라에 부유하게 살던 봉건귀족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하루 자기 자식들과 부하들을 불러놓고 자기는 이 세상에 오래 살아오면서 보고싶은것을 다 보아왔지만 그처럼 세상에 보물로 알려진 고려자기를 보지 못한것이 제일 한스럽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한번이라도 보고 죽으면 한이 없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고려자기는 이 세상의 큰 보물의 하나로 세상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에 왔다가 돌아가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고려자기를 한번이라도 보고가는것을 가장 큰 자랑으로 여기고있었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처럼 고려자기가 세상에 큰 보물의 하나로 널리 알려질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고려자기가 그 시기 다른 나라들에서 만들어진 자기에 비하여 그 색갈과 문양, 모양이 매우 특출하였기때문입니다.

고려자기의 우수성에서 첫째로 들어야 할것은 그 색갈입니다.

고려자기는 푸른색의 아름다운 색갈을 가지고있었습니다.

고려자기의 푸른색을 비색이라고도 하는데 비색이란 말은 원래 풀색과 가을의 하늘색을 띠는 보석이 내는 색갈이라는 뜻에서 나온 말이였습니다.

고려자기의 푸른색은 우리 나라의 맑게 개인 가을하늘빛처럼 맑으면서도 포근한감을 주고있어 세상사람들은 맑고 아름다운 고려자기의 색을 천하제일의 색갈로 높이 찬양하였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예로부터 이러한 푸른색을 좋아하였기때문에 푸른색의 옥돌을 가공하여 몸장식에 널리 써왔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푸른색의 그릇을 만들수 없겠는가 하는것을 연구하던 끝에 비색자기를 만들게 된것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푸른색을 띠는 자기를 만들어낸다는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였습니다.

자기를 만드는 원료들의 섞음을 잘못하거나 구울 때 온도를 조금이라도 잘못 조절하면 다른 색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비색이라는 말을 고려사람들만이 얻어낼수 있는 비밀색갈이라는 뜻으로 쓴다고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려자기의 우수성에서 중요한것은 문양을 독특하고 아름답게 만든것입니다.

고려사람들은 자기를 장식하는 문양을 곱게 하면서 상감이라는 독특한 무늬박이수법을 널리 써왔습니다.

상감수법은 자기겉면에 문양을 그리는것이 아니라 문양대로 홈을 파고 거기에 여러가지 색갈의 흙을 밀어넣어 문양을 장식한 다음 사기물을 발라 구워내는 수법이였습니다.

상감법으로 새겨진 고려자기의 문양은 다양하면서도 아름답기 그지없었습니다.



참대순모양 푸른사기주전자

그가운데는 호수가에 실실이 늘어진 수양버들과 쌍쌍이 헤염쳐노는 물오리들, 뭉게뭉게 피여나는 구름과 훨훨 날아가는 학들을 비롯하여 아름다운 자연풍경이 다 그려져있었습니다.

이렇게 매우 아름다운 문양으로 새겨진 고려자기를 상감자기라

고 하며 은은한 푸른색바탕에 상감을 한 자기를 특별히 비색상감자기라고 합니다.

세상사람들이 보통 고려자기라고 할 때에는 이 비색상감자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고려자기의 우수성에서 다음으로 중요한것은 모양을 매우 아름답게 만든것이였습니다.

고려사람들은 자기그릇의 모양을 만들 때 우리 나라의 자연과 동식물에서 그 아름다운 모양을 찾아내여 그것을 본땄습니다.



포도무늬박이 조롱박모양 푸른 사기주전자와 받치개

고려자기가운데는 뚜껑이나 손잡이, 몸체, 다리부분들을 여러가지 동식물의 형태로 만들어 그 아름다움을 더욱 돋군것이 많습니다.

례를 들면 참대순, 조롱박, 참외, 수박 같은 식물모양을 본따서 만든 주전자들, 비둘기, 사자, 룡, 원앙새 같은 동물모양을 본따서 만든 벼루물통, 기린을 조각한 향로, 룡대가리를 장식한 붓꽂이 등 실로 그 모양이 다양하면서도 독창적인것이 매우 많습니다.

이렇듯 고려사람들은 자기의 창조적지혜와 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세상사람들이 보물처럼 여기는 고려자기를 만들어냄으로써 우리 나라의 이름을 온 세상에 떨치였습니다.

제 6 과. 공주에서 일어난 망이농민폭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착취와 압박이 있는 곳에서는 인민들의 반항이 있는 법입니다.》

지금으로부터 830여년전에 고려에서는 봉건통치배들을 반대하는 농민들의 폭동이 세차게 일어났습니다.

이 시기 봉건통치배들을 반대하여 잘 싸운 농민군부대들중에는

지금의 충청남도 공주지방을 중심으로 하여 싸운 망이농민군부대도 있었습니다.

공주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명학소라는 농촌마을이 자리잡고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가난한 사람들만이 모여 사는 천민집단부락이였습니다.

이곳 농민들은 1년내내 뼈빠지게 일하여 지은 낟알을 량반지주놈들과 봉건관리놈들에게 몽땅 빼앗기고 초가을부터 식량이 떨어져 죽물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사람대접을 받지 못하여 자기 성조차 가지지 못하고 갖은 천대와 멸시를 다 받았습니다.

농민군의 지휘자였던 망이도 자기 성을 가질수 없었던 천민출신이였습니다.

효성이 지극했던 그는 늙은 어머니와 안해를 먹여살리기 위하여 궂은일, 마른일 가리지 않고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망이를 비롯한 이곳 마을사람들은 부모들에게 밥 한그릇 제대로 대접할수 없는 형편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생활이 펴일 날을 기다리면서 직심스럽게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잘 살아보려는 그들의 희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희망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가난은 날을 따라 더해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이대로는 더 참고 견딜수 없다고 생각한 망이는 믿을만 한 마을청년들을 모여놓고 자기들을 못살게 구는 량반지주놈들을 반대하여 싸울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망이는 마을 청년들과 함께 창, 칼, 몽둥이 등을 준비하여 농민무장부대를 뭇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웃마을 농민들도 찾아와 그들과 힘을 합쳤습니다. 그리하여 망이농민군은 큰 부대로 자라나게 되였습니다.

이렇게 큰 세력으로 자라난 망이농민군은 어느날 자기들을 못살게 구는 봉건통치배들의 소굴인 공주를 향하여 쳐들어갔습니다.

농민군들은 앞을 다투어 악질 관리놈들과 량반놈들을 처단하면서 용감히 싸워 단숨에 공주를 점령하였습니다.

공주를 점령한 망이농민군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대단하였습니다.

공주가 농민군에게 점령되였다는 소식에 질겁한 개경(개성)의 봉건정부는 3 000여명의 군대를 보내여 농민군을 공격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농민군은 달려드는 정부군을 쳐물리쳤습니다.

망이농민군은 그후에도 여러차례에 걸쳐 달려드는 정부군을 물리치면서 거의 1년동안이나 공주를 지켜냈습니다.



공주농민폭동

무력의 방법으로 농민군을 진압할수 없다고 생각한 개경의 봉건통치배들은 이번에는 명학소의 농민들을 다른 지방의 농민들처럼 대우를 높여주고 착취도 덜하겠다고 하면서 얼림수를 쓰는데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자 농민군들속에서는 놈들의 꾀임수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농민군의 지휘자였던 망이도 놈들의 꾀임에 넘어가 개경(개성)으로 가서 한달동안 후한 대접을 받으면서 국왕과 담판하고 공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망이의 어머니와 안해가 정부군에게 붙잡

혀간 뒤였습니다.

봉건정부의 배신적인 행동에 격분한 망이는 그 다음해 2월부터 또다시 일어나 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농민군들은 충청도와 경기도 여러 고을의 관청들을 들이치고 악질관리들과 절간의 중놈들을 처단하였습니다.

이렇게 농민군은 두달사이에 충청도의 거의 전부와 경기도의 일부 지방을 장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뒤 농민군의 형편은 점차 어려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망이와의 담판후 시간을 얻어 다른 지방 농민군들을 다 진압한 정부군이 힘을 모아 망이농민군을 공격하는데로 나왔기때문입니다.

정부군의 공격이 강화되고 농민군의 형편이 어려워지자 대오안에서는 다시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정세는 빨리 대오안의 동요를 막고 농민군을 새로운 투쟁에로 불러일으킬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왕에 대한 환상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망이는 담판을 하려고 다시 개경(개성)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망이가 범한 큰 잘못이였습니다.

첫 담판때는 농민폭동이 여러곳에서 한꺼번에 일어나 봉건정부가 위기를 겪고있었기때문에 그가 살아돌아올수 있었지만 봉건정부의 힘이 강해진 이번의 경우는 문제가 달랐습니다.

봉건통치배들은 담판을 하자고 찾아간 망이를 붙잡아 악착하게 학살하였습니다.

이리하여 농민군은 자기의 지휘자를 잃게 되였으며 그뒤 곧 흩어지고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망이농민군은 한때 넓은 지역에서 악질관리들과 량반지주들을 처단하면서 세찬 투쟁을 벌려왔지만 국왕에 대한 환상을 버리지 못하여 실패하였습니다.

망이농민폭동은 비록 실패하였지만 고려봉건통치배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으며 다른 지방에서 일어난 농민군들의 투쟁을 크게 고무추동하였습니다.

제 7 과. 봉건몽골침략군을 물리친 구주성방어자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외래침략자들은 력사적으로 끊임없이 우리 나라를 침공하여왔으나 한번도 우리 인민의 애국적충성심과 용감성을 꺾지 못하였으며 우리 인민을 굴복시킬수 없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80여년전에 고려인민들은 북쪽에서 달려드는 봉건몽골침략자들과 남쪽에서 달려드는 일본해적무리들을 반대하는 힘겨운 싸움을 오래동안 벌리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싸움의 하나가 1231년에 있었던 구주성(오늘의 구성)인민들의 반몽골투쟁이였습니다.

그해 8월말이였습니다.

살레탑이 이끄는 수만명의 몽골침략군이 압록강을 건너와 고려의 여러 지방을 강점하고 갖은 만행을 다하면서 개경(개성)을 향하여 계속 남쪽으로 내려오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적장놈에게는 큰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주성문제였습니다.

만일 구주성을 점령하지 못한채 계속 남쪽으로 내려갔다가는 앞으로 도망칠 때 거란침략자들처럼 구주성부근에서 무리죽음을 당할수 있다는것이였습니다.

그래서 적장 살레탑은 기본주력부대는 계속 남진하도록 하는 한편 많은 병력을 떼내여 구주성을 포위공격하게 하였습니다.

이때 구주성에는 박서장군이 지휘하는 1 000여명의 군대와 인민들이 있었을뿐이였습니다.

그들은 박서장군의 지휘밑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성을 끝까지 지켜낼 방어준비를 튼튼히 갖추고있었습니다.

그해 9월초, 드디여 몽골침략군의 공격이 시작되였습니다.

성을 단숨에 집어삼킬듯 갑옷과 창, 칼을 번뜩이며 달려드는 적들의 기세는 이만저만이 아니였습니다.

그러나 구주성을 지켜나선 고려군대와 인민들은 조금도 두려워

하지 않고 적들을 맞받아 용감히 싸웠습니다.

적들이 성밑에 다달으자 갑자기 성문을 열고 나간 용감한 고려군사들은 여러놈의 적장수의 목을 베고 수많은 적들을 쓸어눕혔습니다.

고려군사들의 용감한 반격에 얼혼이 나간 적들은 숱한 죽음을 내고 제놈들의 진지로 도망치고말았습니다.

첫 공격에서 실패한 적들은 이번에는 긴 사다리들을 가지고와서 그것을 세워놓고 성을 기여넘으려고 하였습니다. 적들이 개미떼처럼 달려들어 성으로 기여오를 때 구주성방어자들은 드세찬 반격을 가하여 놈들에게 무리죽음을 주었습니다.



구주성싸움

그리고 사다리도 넘어뜨려 마사버렸습니다.

패배를 거듭하자 악에 받친 적들은 이번에는 큰 나무상자속에 몸을 숨기고 성밑까지 와서 굴을 파기 시작하였습니다.

땅굴을 파서 성밑을 거쳐 성안으로 기여들자는것이였습니다.

그러나 적들의 이러한 공격계획도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적들의 음흉한 잔꾀를 알아차린 방어군은 우로부터 굴을 내리뚫고 펄펄 끓는 쇠물을 퍼부어 놈들을 모조리 불태워죽였습니다. 이처럼 성밑을 파고들어오려던 시도가 파탄되자 이번에는 성문을 불태워버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백명의 적들이 나무단을 둘러메고 이리떼처럼 성문으로 달려와 그것을 쌓아놓고 기름을 뿌린 다음 불을 질렀습니다.

순간 삼단같은 불길이 솟구쳐올랐습니다.

성안에는 위험이 조성되였습니다. 이 순간 용감하고 슬기로운 구주성방어자들은 진흙물을 우로부터 내리부어 불을 꺼버렸습니다.

이처럼 적들은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구주성을 점령하려고 몇달째 발악하였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들은 구주성에 대한 공격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공격할 때마다 빈번히 무리죽음만을 당하고 쫓겨갔던 적들은 이번에는 큰 돌을 날려보내는 대포차를 리용하여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였습니다. 수십대의 대포차를 앞세우고 성으로 달려든 적들이 큰 돌을 날려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돌에 맞아 성벽이 여러곳이나 무너졌습니다.

성벽이 무너지자 적들은 미친듯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구주성방어자들은 이번에도 박서장군의 지휘밑에 결사전을 벌려 적들을 족치고 성을 지켜냈습니다.

이렇게 되자 적장 살례탑은 박서장군에게 편지를 보내여 높은 벼슬과 많은 재물을 주겠으니 항복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박서장군은 놈들의 꾀임을 단호히 물리치고 군대와 인민들의 투쟁을 잘 지휘하여 다음해 1월 적들이 물러갈 때까지 수개월동안이나 구주성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이때 적들은 구주성사람들이 작은 성으로 대군을 막아낸것은 하늘이 도와주었기때문이지 사람의 힘은 아니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구주성공격에 참가하였던 70살에 가까운 몽골의 한 늙은 장수는 말하기를 《나는 젊어서부터 군대에 복무하면서 천하의 여러 성들에 대한 공격전을 무수히 보아왔지만 이처럼 무서운 공격을 받으면서도 항복하지 않는것은 일찌기 본적이 없다.》고 우는 소리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구주성을 끝까지 지켜싸운 고려인민들의 용감성에 대한 숨김없는 감탄이였습니다.

이처럼 고려인민들은 세계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던 몽골침략자들의 횡포한 침략을 물리치고 나라를 영예롭게 지켜냈습니다.

제 8 과. 애국적발명가 최무선

지금으로부터 600여년전 고려는 왜구라는 일본해적무리들의 끊임없는 침입을 받아왔습니다.

일본해적무리들은 일본섬으로부터 배를 타고 와서 우리 나라 남해와 서해바다가에 있는 쌀창고와 마을들을 습격하여 많은 쌀과 귀중한 재물들을 략탈해가군 하였습니다.

이러한 왜적들에 의한 피해는 수십년동안 계속되였는데 이로 말미암아 바다가사람들은 물론이고 온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불안과 근심속에서 나날을 보내고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고려의 무관이였던 최무선은 화약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을 연구완성하고 여러가지 화약무기들을 만들어 왜적의 피해를 없애고 국방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고려시기에 최무선이 화약을 발명하여 국방에 큰 기여를 하였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일찍부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탐구심이 강하였던 최무선은 끊임없이 기여들어 략탈을 감행하는 왜적무리들을 없애자면 반드시 화약무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던 고려 말기 우리 나라에는 화약 만드는 방법이 알려지지 않고있었습니다.

물론 퍽 앞선 삼국시기에 이미 화약을 리용하여 만든 대포들이 전투에서 사용된 일이 있기는 하나 그때의 화약 만드는 방법은 국가의 큰 비밀로 되여 후손들에게 전하여지지 못하였던것입니다.

그러므로 최무선은 아무것도 모르는 빈터우에서 화약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최무선의 화약연구는 이처럼 어려운 사업이였고 또 얼마나 오랜 시일이 걸려야 성공할지 모르는 사업이였습니다.

그러나 최무선은 반드시 자기 힘으로 화약을 만들어내고야말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연구사업에 달라붙었습니다.

그는 화약과 관련되는 여러가지 책들을 구해보기도 하고 화약

의 비밀을 알수 있을것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찾아가 물어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로부터 화약 만드는 기술을 뽑아내기 위하여 여러가지로 애를 써보았습니다.

그러나 화약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없었고 또 안다고 해도 알려줄리 만무하였습니다.

최무선은 하는수없이 자기 집에다 자그마한 실험실을 꾸려놓고 화약연구에 달라붙었습니다.

그의 가족들과 집 종들도 그의 연구사업을 적극 도와나섰습니다.

최무선과 그의 집 종들은 오래된 절간이나 큰 집 마루밑의 먼지, 변소와 집주변의 흙, 부엌아궁이의 재들을 걷어들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최무선은 이렇게 걷어들인 흙과 먼지들을 물에 풀어 천에 거른다음 가마에 넣고 졸이기도 하고 닦아보기도 하면서 실험을 거듭하였습니다. 10여년간의 오랜 세월에 걸쳐 수백수천번의 실험을 거듭하던 끝에 그는 끝내 화약의 주성분인 염초(질산칼리움)를 얻어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염초는 화약을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될 기본성분이였습니다.

최무선은 이렇게 얻은 염초에다가 류황과 밀짚재를 약간씩 섞어 화약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화약을 흑색염초화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검은색의 염초를 주성분으로 화약을 만들었다는 뜻이였습니다.

최무선은 화약을 만들어내는데만 그치지 않고 여러가지 종류의 화약무기를 만들어 그것을 배우에 설치하기 위한 방법까지 연구완성하였습니다.

그는 봉건정부에 국가적인 힘을 넣어 화약무기를 많이 만들데 대하여 제기하였습니다.

고려정부는 그의 제의를 받아들여 화약과 화약무기를 만드는 일을 맡아보는 화통도감이라는 기관을 내오고 그 책임자로 최무선을 임명하였습니다.

그후 화통도감에서는 최무선의 지휘밑에 대포를 비롯한 여러가지 화약무기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화약무기로

는 대장군포, 2장군포, 3장군포, 륙화석포, 화포, 신포, 질려포 등 포들과 철령전, 피령전, 철탄자, 주화 등의 포탄 또는 화전(불화살)이 있었습니다.

최무선은 이러한 화약무기들을 배우에서 정확히 쏠수 있게 하기 위하여 싸움배의 구조도 개조하도록 하였습니다.



화약무기만들기

그리고 배우에서 대포를 쏠 때 배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방법과 화약이 습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법까지 창안하였습니다.

최무선의 이러한 여러가지 창안들이 있었기때문에 고려의 싸움배들에서 쏘는 포탄들은 백발백중이였습니다.

이리하여 왜적들을 족치는 바다싸움들에서 고려군대들은 매번 승리할수가 있었습니다.

최무선에 의한 화약 만드는 방법의 창안은 이처럼 고려 말기 왜구들의 침입을 막아내고 나라와 민족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실제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제9과. 붓대속에 감추어온 목화씨

고려 말기에 있은 일입니다.

고려의 사신으로 원나라에 갔던 문익점은 그 나라 조정의 미움을 받아 운남(중국의 남쪽지방)이란 곳에 류배가게 되였습니다.

운남은 해빛이 쟁글쟁글 내리쪼이는 무더운 곳이였습니다.

춘하추동이 따로 없고 무더위가 계속되여 그늘밑에서도 땀이 줄줄 흐르는가 하면 또 여러날 비가 구질구질 내리기도 하는 고장이였습니다.

간곳마다 득실거리는건 사나운 짐승뿐이고 어디나 독뱀이 혀를 날름거리고있었습니다.

《실로 내 나라만큼 살기 좋은데는 없구나.》

류배살이를 하는 문익점은 이렇게 탄식하였습니다.

그럴수록 고국에 대한 그리움은 가슴을 저미였습니다.

… 화창한 봄과 록음우거진 여름, 오곡이 무르익는 풍요한 가을과 함박눈 내리는 겨울 …

살기 좋고 아름다운 고국은 수만리 먼곳에 있었습니다.

문익점은 어떤 일이 있어도 기어이 그리운 조국으로 돌아가리라 생각하였습니다.

북쪽땅에서 살던 사람이 이 더운 지방으로 오면 거의다 병에 걸려 눕게 되고 나중엔 일어나지 못한채 낯선 땅에 묻히게 된다고들 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익점은 꾸준히 몸과 마음을 단련해나갔습니다.

한시도 조국을 잊은적 없었으며 나라를 위해 무슨 일을 할가 곰곰히 궁리도 하였습니다.

한번은 들에 나갔던 문익점이 희한한것을 보게 되였습니다.

해빛이 쨍쨍 내리쪼이는 넓은 벌에 마치 함박눈이 내린듯 하였습니다.

그는 급히 가까이 가보았습니다.

어깨를 치는 나무에 주먹만 하고 소담한 흰 뭉치가 눈부신 꽃처럼 다닥다닥 매달려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꽃입니까?》

그는 밭에서 일하는 한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목화입니다.》

농부는 흔연히 대답하였습니다.

《목화로는 무엇을 합니까?》

그는 호기심이 부쩍 동하였습니다.

《이것은 솜이 됩니다. 이 솜으로는 실도 뽑고 천도 짭니다.》

이날 문익점은 목화송이가 여러개 붙은 가지를 하나 얻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제 방으로 돌아온 그는 오래도록 목화송이를 어루만졌습니다. 말할수없이 포근한 촉감에 마음까지 부드러워지는것 같았습니다.

그는 목화송이를 뺨에도 대보았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없는 목화! 여기서 실이 나고 그 실로 천을 짠다지.》

문익점은 엄동설한에도 베옷을 입고 지내는 고국의 백성들을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어이하랴, 고국은 산넘고 구름넘어 몇만리나 되는데 언제면 돌아가는가.

그는 한숨을 내쉬며 목화송이를 벽에 걸어놓았습니다.

문익점은 기어이 고국에 돌아갈 날이 오리라고 믿고 꿋꿋이 살아갔습니다.

강직하게 사는 문익점을 보고 원나라의 학자들까지도 감탄하면서 위로의 글을 보내주었습니다.

《문선생의 마음을 사람들은 다 몰라도 하늘은 알아줄것이요.》

문익점은 보내온 글을 읽고 고맙게 생각하고 힘을 얻었으며 한순간도 책과 붓을 손에서 놓지 않고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그는 운남땅에서 보고들은것을 가지고 《운남풍토집》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어느덧 세월은 흘러 1363년, 문익점은 그리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였습니다.

그의 기쁨은 하늘에 닿을듯 하였습니다.

《나는 그동안 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 목숨이 붙어 그리운 부모처자를 만나는것으로 시름을 놓아야 하는가?》

땅을 떠나기 앞서 문익점은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여러권으로 된 《운남풍토집》을 어루만졌습니다.

고귀한 노력과 땀이 스민 이 책은 그가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였다는것을 말해주고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서는 모자랐습니다.

문득 눈길은 벽에 가닿았습니다.

언젠가 얻어두었던 목화송이가 보였습니다.



붓대속에 목화씨를 넣고있는 문익점

《저걸 가져갔으면 …》

생각만 해도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목화에 대하여 이것저것 알게 되였습니다.

목화송이에 씨가 있다는것도 알고 이 나라에서는 목화씨를 다른 나라에 가져가는것을 엄하게 막는다는것도 알게 되였습니다.

언젠가 목화씨를 가져가던 어느 나라 사람이 그것이 탄로나서 붙잡혀 류배살이를 하다가 죽고말았다는것이였습니다.

《그래도 나는 저것을 가져가리라!》

문익점은 굳게 다짐하면서 목화송이에서 씨를 빼냈습니다. 씨는 모두 열개였습니다.

문익점은 목화씨를 남몰래 가져가기 위해 궁리하다가 무릎을

쳤습니다.

붓대속에 넣어가는것이 좋을것 같았습니다.

혹시 한두대 잃어버려도 그렇고 해서 여러대의 붓대속에 나누어 넣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오는 길은 멀었습니다.

국경의 세관검사에서도 붓대는 무난히 넘겼습니다.

하지만 《운남풍토집》은 빼앗겼습니다. 그 나라의 비밀이 새여나간다는것이였습니다.

고향인 경상도 진주땅에 돌아온 문익점은 장인인 정천익과 함께 목화를 심었습니다.

심고 가꾸는 법을 몰라서 모두 죽고 겨우 한대가 살아남았습니다.

문익점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갖은 고생을 다 겪으며 수만리 이국땅에서 가져온것이 이렇게 다 죽어버리고말다니 …》

그는 한대의 목화나무앞에서 눈물을 머금었습니다.

하지만 정성들여 가꾼 보람이 있어 목화나무는 싱싱하게 자랐습니다.

문익점의 기쁨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의 일가는 애지중지 목화를 키웠고 이웃들도 도와나섰습니다.

그리하여 몇해뒤에는 목화가 온 동네에 퍼졌고 나중에는 온 고을에 퍼지였으며 삼남일대와 온 나라 어디가나 목화밭이 생겨나게 되였습니다.

전하는데 의하면 그뒤 문익점의 손자 문래는 실을 뽑는 기구를 만들어냈는데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붙여 《물레》라고 하였습니다.

또 문래의 동생 문영은 천짜는 법을 연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목화로 짠 천은 《무명》이라고 불렀습니다.

실로 문익점은 나라를 위해 훌륭한 일을 한 애국자였습니다.

제10과. 왜구의 소굴 쯔시마공격

고려 말기에 최무선에 의하여 화약과 화약무기가 많이 만들어짐으로써 고려수군의 무장장비가 더욱 강화되였습니다.

이에 기초하여 고려수군은 왜적들을 쳐없애기 위한 몇차례의 큰 전투를 벌려 놈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1380년 8월이였습니다.

하루는 수만명에 달하는 왜적들이 500여척의 배에 나누어 타고 진포(충청남도 금강하구)에 기여들었습니다.

이것은 일찌기 없었던 왜적들의 대규모적인 침입이였습니다.

진포 앞바다에 이른 놈들은 일부는 남아서 배를 지키고 대부분은 뭍에 올라 여러 마을들을 싸다니면서 재물과 곡식을 략탈하였습니다.

왜적들은 고려사람들이 반항하기만 하면 마구 찔러죽이고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때 왜적들이 진포에 침입하였다는 소식을 알게 된 라세, 최무선 등이 지휘하는 고려수군은 100여척의 싸움배를 가지고 기세당당하게 진포앞바다에 나타났습니다.

고려싸움배들이 먼저 적선을 향하여 돌진하자 왜적들은 고려수군의 함선수가 적은것을 보고 일제히 배우에 올라 싸울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진포앞바다에서는 100여척의 고려배와 500여척의 왜적배들사이에 치렬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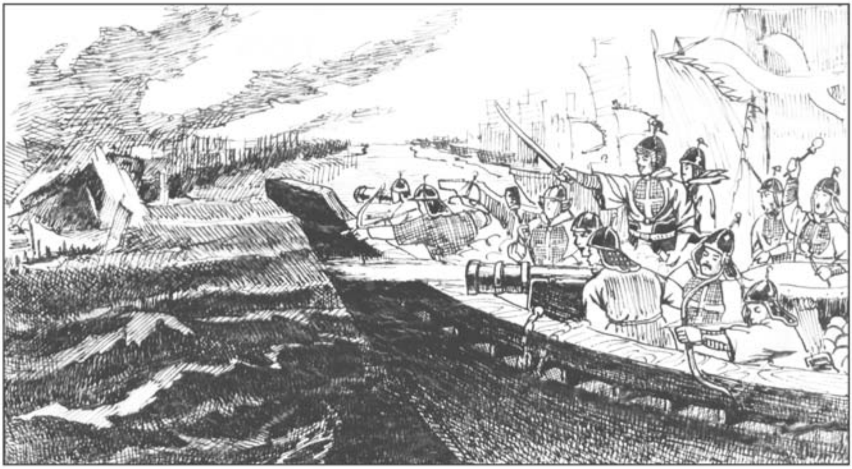
고려싸움배에 위력한 화약무기가 설치되여있다는것을 알리 없는 왜적들의 배는 무리를 지어 달려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이때 고려함선에서는 일제히 포문을 열고 화포를 쏘았습니다.

일시에 적들의 배에는 불이 달리고 짙은 연기와 거센 불길이 온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포사격소리와 타래쳐오르는 불길에 정신이 나간 왜적들은 이리뛰고 저리뛰다가 포탄에 맞아죽고 불에 타죽고 물에 빠져죽었습니다.

고려수군은 잠간사이에 적선 500여척을 불태워버리고 수많은 적들을 소멸하였습니다.



진포바다싸움

참으로 통쾌한 승리였습니다.

이것이 력사에 널리 알려진 진포바다싸움입니다.

이 진포바다싸움은 우리 나라에서 싸움배에 화약무기를 처음으로 설치하고 진행한 싸움으로서 고려에서 새로 만든 화약무기의 위력을 남김없이 시위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진포바다싸움이 있은 후에도 고려수군은 여러차례나 왜놈들의 함대를 때려부시기 위한 전투를 벌렸습니다.

그러나 략탈만을 일삼고있던 왜적들은 고려에 대한 침략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침입해오는 왜적들을 바다에서 기다리다가 쳐부시는것만으로는 놈들의 침략과 략탈을 완전히 막아낼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고려정부는 왜구의 소굴인 쯔시마를 공격하여 그 뿌리를 빼기로 하였습니다.

1389년 2월 어느날이였습니다.

위력한 화약무기로 장비된 박위가 지휘하는 100척의 고려함대는 적을 일격에 소멸할 기세로 왜구의 소굴인 쯔시마를 향하여 떠났습니다.

고려수군이 공격해오리라고는 생각지 못한 왜적들은 수백척의

배들을 섬가까이에 잡아매놓고 무사태평하게 지내고있었습니다.

고려함대는 섬가까이에 접근하여 갑자기 화포를 쏘아 놈들의 배 300여척을 모조리 불태워버렸습니다.

고려수군의 불의의 공격에 얼혼이 나간 적들은 싸워볼 생각도 못하고 험한 산속으로 도망쳐버렸습니다.

고려수군은 왜적들이 우리 나라 침략에 리용하던 바다가시설물들을 모조리 파괴한 후 적들에게 잡혀갔던 100여명의 고려사람들을 구원하여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쯔시마공격은 오래동안 적들의 침략만을 받아오던 고려사람들이 반격으로 넘어가 왜구의 소굴에 가한 첫 타격으로서 고려수군의 위력을 다시한번 힘있게 시위하였습니다.

이 공격을 계기로 고려함대의 위력앞에 기가 꺾인 적들은 그후 다시는 고려에 함부로 덤벼들지 못하였습니다.

쯔시마공격은 고려의 대외적위신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습니다.

그것은 왜구의 침략을 받던 여러 나라들중에서 고려가 제일 먼저 그것도 150여년이나 앞서 그 침입을 끝장냈기때문입니다.

제 11과. 군사를 돌려세운 리성계의 죄악

리조봉건국가는 리성계가 고려왕조를 뒤집어엎고 정권을 잡게 됨으로써 세워지게 되였습니다.

리성계가 정권을 잡고 왕이 되려는 야심은 1388년 료동원정시기부터 로골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시기 중국에 세워졌던 명나라의 통치배들은 고려에 대하여 압력을 가하면서 강원도 철령이북의 고려땅을 무조건 내놓으라는 강도적인 요구를 제기하여왔습니다.

한편 강계지방에는《철령위》라는 저들의 통치기관을 내오려고까지 서둘렀습니다.

고려정부는 이러한 명나라의 옳지 못한 립장과 행동에 대하여 격분해 하면서 이 기회에 무력으로 랴오둥지방을 들이쳐서 적들의 침략기도를 꺾어버리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료동지방의 옛 고구려와 발해땅을 되찾을수 있는 마지막 좋은 기회였습니다.

고려정부에서 세운 이 료동원정계획은 당시 조건에서 잘 세운 계획이였으며 또 능히 실현할수 있는것이였습니다.

고려정부는 곧 5만명의 료동원정군을 편성하였으며 총사령관으로는 최영, 부사령관으로는 조민수, 리성계 등을 임명하였습니다.

원정군은 1388년 5월초 압록강하류에 있는 위화섬에 이르렀으며 일부 선봉부대는 압록강중류일대에서 강을 건너가 료동지방으로 진격하고있었습니다.

전반적정세는 매우 좋았습니다.

그러나 리성계는 이 기회에 고려왕조를 뒤집어엎고 정권을 잡으려는 야욕에서 료동원정을 중도에서 반대하였습니다.

리성계는 빨리 료동지방으로 진격하라는 고려정부의 지시를 거역하고 반란을 일으켜 군사를 되돌려세웠습니다.

그리고 반란군을 내몰아 개성을 점령하였습니다.

개성을 점령한 후 리성계는 최영을 비롯한 고려의 충신들을 잡아죽이거나 정배지로 보내고 자기가 정치적실권을 틀어쥐였습니다.

이처럼 리성계는 료동원정계획을 파탄시킴으로써 고구려와 발해의 옛땅을 되찾을수 있는 좋은 기회를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리성계는 정치적실권을 틀어쥔 다음 왕까지도 제마음대로 떼거나 올려앉히였으며 생트집을 걸어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놈은 자기가 왕이 되는것을 지지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정부에서 내쫓거나 죽여버리였습니다.

리성계일파는 자기 반대파들을 수많이 집단적으로 학살하였는데 여러차례에 걸쳐 남해바다가의 외진섬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배에 싣고가다가 깊은 바다에 처넣기도 하고 배밑에 구멍을 내여 바다물속에 가라앉히는 방법으로도 죽이였습니다.

전하는 자료들에 의하면 개성지방에 살던 왕가성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고려의 왕족후손이라고 하여 모조리 죽였다고 합니다.

이때 일부 살아남은 왕가성을 가진 사람들은 바빠맞아 성을 고쳐 옥가, 전가 등으로 변성을 하여 겨우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반대파들을 다 없애치운 리성계는 1392년 7월에 드디여 고려의 마지막왕인 공양왕을 내쫓고 자기가 왕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리하여 475년간 계속되여온 고려왕조는 끝장나고 리조봉건국가가 새로 세워지게 되였는데 나라이름은 조선이라고 하였습니다.

리성계일파는 리조성립이후에도 계속 반대파들을 탄압하는 한편 명나라를 섬기는것을 나라 대외정책의 기본으로 내세우면서 큰나라를 섬기고 굽신거리는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리성계의 배신적인 정권탈취를 반대하여 계속 싸우고있는 개성사람들의 반항을 피하기 위하여 오늘의 서울로 수도를 옮기였습니다.

모든 력사적사실들은 리성계가 우리 나라에서 사대주의를 적극 조장시킨 극단한 사대주의자이며 왕권을 빼앗기 위하여 우리 인민들이 그처럼 갈망하던 고구려, 발해의 옛땅을 되찾기 위한 료동원정을 말아먹은 장본인이였다는것을 보여줍니다.

하기에 당시의 개성사람들은 리성계를 극도로 미워하던 나머지 돼지고기를 성계고기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리성계를 돼지고기처럼 씹어먹어도 시원치 않을 놈이라는 증오의 뜻에서 그렇게 말한것입니다.

제 12 과. 세계의 첫 측우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로 빛나는 우리 민족은 오랜 옛날부터 과학적창조와 발명으로써 인류문화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는데 크게 기여한 훌륭한 전통을 가지고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리조시기에 와서도 세계과학기술발전에 크게 기여한 여러가지 새로운 발명들을 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실례의 하나가 비내림량을 과학적으로 재는 측우기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발명한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60여년전 우리 나라에서는 농업의 발전과 함께 날씨를 연구하는 기상학분야에서도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비가 내린 량을 재는데서 처음에는 비물이 땅속에 얼마나 깊이 스며들었는가를 재는 방법을 써왔습니다.



측우기

그리하여 《1405년 4월 20일 경상도에 비가 왔다. 계림, 안동, 성주, 밀양 등 26개 고을에서 땅속으로 한자 남짓한 깊이에까지 스며들도록 왔다.》라는 식으로 써넣군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비가 왔을 때에 중앙에서뿐아니라 지방의 여러 고을에서도 비물이 땅속에 스며든 깊이를 재서 중앙에 보고하고 중앙에서는 그것을 종합하는것을 제도화하고있었다는것을 보여줍니다.

비가 왔을 때에 이처럼 그 량을 구체적으로 재여 기록에 남기는 방법의 싹은 이미 고려말기부터 시작되였습니다.

그러나 비물이 땅속에 스며드는 깊이는 토질에 따라 다르고 또 같은 토질에서도 마른 땅인가 젖은 땅인가에 따라 서로 달랐습니다.

이런 방법으로써는 비가 내린 량을 정확히 잴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선조들은 비내림량을 정확히 잴수 있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기 위하여 고심어린 연구를 거듭하였습니다.

그러던 1441년 8월 드디여 장영실이란 사람에 의하여 세계에서 처음으로 과학적인 비내림량을 재는 기구인 측우기가 발명되게 되였습니다.

이때 우리 선조들이 처음 만든 측우기는 세계적으로 볼 때에도 제일 먼저 만든것으로 됩니다.

이딸리아사람 베네데또 까스뗄리가 유럽에서 제일 먼저 1639년에 비내림량을 재는 기구를 만들었다고 전하는데 이에 비하여 볼 때 우리 선조들은 그보다 근 200년이나 앞서 측우기를 만든것으로 됩니다.

이것은 우리 선조들의 창조적지혜와 재능을 보여주는 큰 자랑으로 됩니다.

우리 선조들이 처음 만든 측우기는 둥근 쇠통모양으로 되였는데 크기를 보면 높이 약 40cm, 직경 약 16cm였습니다.

당시 중앙기상천문기관이였던 서운관에서는 이러한 측우기를 설치해놓고 일상적으로 비내림량을 재서 기록해놓았습니다.

그후 측우기의 높이가 지방에 따라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각 지방의 비내림량이 다르므로 측우기를 써본 경험에 따라 자기 지방에 맞게 그 크기를 조절한것과 관련되여있었습니다.

우리 인민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측우기를 발명하였을뿐아니라 비내림량을 재는 과학적인 방법과 제도를 세우는데서도 다른 나라들보다 앞섰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벌써 지금으로부터 560여년전에 비가 올 때마다 매 고을들에서 비가 오기 시작한 시간과 멎은 시간 그리고 비가 내린 량을 정확히 재서 도에 보고하고 도에서는 중앙의 서운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정연한 체계가 세워져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운관에서는 전국적인 기상자료들을 종합하여 기록해놓는 제도를 세웠습니다.

비내림량을 전국적규모에서 과학적으로 재서 중앙에 보고하고 중앙에서는 그것을 종합적으로 장악하는 제도를 세운것은 역시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수백년이나 앞선것으로 됩니다.

이처럼 우리 선조들은 세계에서 제일 선참으로 철제측우기를 발명하고 비내림량을 정확히 재는 과학적인 방법과 제도를 세움으로써 중세기 세계기상학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습니다.

제 13 과. 우리 글자 《훈민정음》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우리 인민은 1444년에 가장 발전된 문자인 훈민정음을 창제함으로써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지금으로부터 5 000여년전인 고조선때부터 신

지글자라는 글자를 만들어 써왔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흘러가고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우리 말의 말소리는 더욱 풍부해지고 우리 인민들의 문화수준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민들이 쓰기에 편리하고 우리 말을 글로 더 잘 적을수 있는 보다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낼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리조시기에 와서 많은 학자들이 새로운 우리 글자를 만들어내기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보다 우수한 우리 글자를 만들기 위한 연구사업은 리조의 네번째 왕인 세종왕시기에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였습니다.



훈민정음

세종왕은 우리 글자를 만들기 위하여 나라안의 재능있는 학자들을 모아 연구기관을 만들어놓았습니다.

연구기관에 모인 학자들인 정린지, 성삼문, 신숙주, 최항, 박팽년 등은 모두가 한사람같이 달라붙어 어떻게 하면 우리 말을 쉽고 정확하게 적을수 있는 글자를 만들것인가에 대하여 연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옛날부터 써오던 우리 글자와 다른 나라 사람들의 글자를 만든 원리, 그 생김새에 대하여 하나하나 연구하면서 보다 우수한 우리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몇년동안의 고심어린 연구과정을 거쳐 그들은 드디여 지금으로부터 560여년전인 1444년에 지금 우리가 쓰고있는 글자를 만들어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글자이름을 《훈민정음》이라고 하였습니다.

《훈민정음》이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입니다.

《훈민정음》은 모두 28자로 되였는데 자음이 17자, 모음이 11자였습니다.

이 글자들을 가로세로 맞추어쓰면 우리 나라 말을 자유롭게 표현할수 있게 되여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은 24자만을 쓰고 4자는 쓰지 않습니다.

《훈민정음》은 우리 말을 매우 정확하고 풍부하게 표현할수 있는 매우 훌륭한 소리글자입니다.

그러면 우리 글자《훈민정음》의 우수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봅시다.

우리 글자《훈민정음》은 무엇보다먼저 남의 글자를 본따서 만든것이 아니라 우리 인민이 자기의 힘과 지혜로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독특한 글자입니다.

우리 인민은 신지글자를 써오는 과정에 얻은 귀중한 경험에 기초하여 우리 말을 글로 가장 정확히 적을수 있는 독자적이며 독특한 글자를 만들어낼수 있었습니다.

우리 글자 《훈민정음》은 또한 동서양의 어떤 나라 말의 발음이든지 거의 마음대로 글로 적을수 있게 잘 만들어진 훌륭한 글자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말소리뿐만아니라 여러가지 짐승소리까지도 다 적을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글자는 또한 글자의 수가 적고 모양이 간단하여 배우기도 매우 쉬운 글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며칠동안만 열심히 공부하면 다 배울수 있게 되여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민은 우리 글자《훈민정음》이 만들어지자 그것을 리용하여 자기 생활과 감정을 표현한 시가와 국문소설 같은 문학작품들을 많이 창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서 제일 우수한 우리 글자가 수백년전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져 널리 리용되여왔다는것은 우리 민족의 크나큰 자랑의 하나로 됩니다.

제 14 과. 함경도농민전쟁과 리시애

지금으로부터 540여년전에 함경도지방에서는 리시애의 지휘밑에 봉건통치배들에게 큰 타격을 준 농민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원래 함경도는 날씨가 차고 땅이 나빠 농사가 잘 안되는 지방이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지방 인민들은 매우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곳 인민들은 다른 지방에는 없는 국경경비를 맡아보았고 두만강건너편에 살던 녀진사람들이 서울로 오갈 때마다 그들의 짐을 운반하거나 잠자리와 식사를 보장하는 등의 시중을 들어야 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이 지방 사람들은 다른 도에는 없는 신세포라는 무당세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세금을 물어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지방 인민들속에서는 리조봉건통치배들에 대한 불평불만이 날을 따라 커갔습니다.

이 지방에서는 량반들속에서도 서울량반들에 대한 불만이 커갔습니다. 그것은 봉건정부의 지방차별정책에 의하여 이 지방 량반들에게는 나라의 높은 벼슬자리는 더 말할것도 없고 지방의 낮은 벼슬자리도 차례지지 않았기때문입니다.

그때 함경도지방의 높은 벼슬자리는 대부분 남도출신 량반들이 차지하고있었습니다.

서울량반들에 대한 인민들의 반항기세와 지방량반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길주지방의 량반출신이였던 리시애는 이것을 리용하여 서울량반들을 반대하는 반란을 일으킬것을 계획하였습니다.

드디여 1467년 5월 10일 길주에서는 리시애의 지휘밑에 지방량반들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반란자들은 길주에 와있던 함경도 절도사 강효문을 비롯하여 서울에서 파견되여온 관리들을 처단한 다음 농민들에게 봉건정부를

반대하여 들고일어날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리시애의 반란은 서울량반들에 대한 함경도지방 량반들의 쌓이고쌓인 불만의 폭발이였습니다.

리시애반란소식이 함경도 여러 고을에 알려지자 이 지방의 수많은 농민들도 투쟁에 일떠섰습니다. 그것은 이 란리통에 농민들을 못살게 구는 량반지주, 특히 서울에서 내려온 놈들을 복수하자는것이였습니다.

여러 고을의 농민들은 무장을 갖추고 떨쳐일어나 관청을 들이치고 서울에서 파견되여온 악질관리놈들을 처단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에 고원이북의 함경도지방에서는 2만여명의 농민군이 조직되였는데 그 지휘부안에는 리시애와 같은 지방량반들이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함경도지방에서 큰 농민폭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에 바빠맞은 서울량반들은 3만여명의 토벌군을 무어 함경도지방에 파견하였습니다.

그해 6월 하순에 북청에서는 농민군과 정부군사이에 첫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먼저 1만 6 000여명의 농민군은 리시애의 지휘밑에 북청성에 기여든 적들에게 10여차의 맹렬한 공격을 들이대여 커다란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게 되자 농민군지도층은 정부군과 화의를 맺고 퇴각을 조직하였습니다.

정부군도 함흥쪽으로 퇴각하였습니다.

이때 농민군은 정부군을 계속 따라가 된타격을 안겨주어야 할것이였습니다. 그러나 농민군은 지휘부안에 기여들었던 지방량반들때문에 싸움에서 거둔 성과를 더 확대해나갈수 없었습니다.

리시애는 적들과 끝까지 싸울 대신 일부 부대만을 북청에 남겨둔채 주력부대를 이끌고 리원지방으로 물러섰습니다.

이것은 농민군의 작전상 커다란 실책이였습니다.

력량을 다시 꾸린 정부군은 7월 하순에 북청을 공격하여 점령하였습니다.

북청에서 물러난 농민군은 북청으로부터 리원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만령고개에 진을 치고 정부군의 진격을 막아보려고 하였습니다.

리원지방으로 물러섰던 리시애도 주력부대를 이끌고 만령고개로 나왔습니다.

이리하여 만령고개에서는 그해 8월 4일 5 000여명의 농민군과 정부군사이에 치렬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농민군은 유리한 지형을 먼저 차지하고 용감히 싸워 고개로 기여오르는 정부군의 공격을 여러번 물리쳤습니다.

이때 정부군은 주력부대로 계속 정면공격을 진행하는 한편 일부 병력을 떼여 동쪽 바다로부터 옆으로 에돌아 농민군의 뒤방향으로 공격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농민군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였습니다.

이러한 위급한 순간에도 농민군은 동요하지 않고 적들을 맞받아 용감히 싸워 놈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농민군은 하루종일 벌어진 전투에서 만령고개를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고 또다시 뒤로 물러서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그후 농민군 지휘부안에서는 동요가 일어났으며 리시애는 농민군지휘부에 기여들었던 지방량반출신의 변절자에 의하여 붙잡혀 처형당하였습니다.

이리하여 함경도농민전쟁은 지휘부안에 기여들었던 배신자들때문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함경도농민전쟁은 서울량반통치배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으며 그 시기 봉건통치배들을 반대하는 각지 인민들의 투쟁에 커다란 고무적힘을 안겨주었습니다.

제 15 과. 리순신장군과 거북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리순신장군은 다른 나라에서 만들지 못한 거북선을 만들었을뿐아니라 우리 나라에 기여드는 왜적을 바다우에서 물리쳤습니다.》

리조시기 일본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1592년－1598년 임진조국전쟁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인민들의 수많은 용감한 투쟁과 함께 리순신장군과 거북선에 대하여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리순신장군이 거북선과 같은 위력한 철갑선을 만들어 일본침략자들을 족치는데서 큰 공적을 세웠기때문입니다.

리순신장군은 임진조국전쟁이 일어나기 한해전인 1591년에 전라좌도의 수군을 책임진 절도사로 되였습니다.


리순신

이때로 말하면 일본놈들이 우리 나라를 먹겠다고 침략전쟁준비에 미쳐 날뛰고 있던 때였습니다.

정세로 보아 일본놈들이 인차 우리 나라에 쳐들어올것이라는것을 타산한 리순신장군은 수군을 강화하는데 큰 힘을 넣었습니다.

그는 수군대렬을 보충정비하고 식량과 무기를 마련하면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되는 독특한 철갑선인 거북선을 만들었습니다.

이리하여 리순신장군이 지휘하는 수군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적과 맞서 싸울수 있는 준비를 튼튼히 갖추었습니다.

간악한 일본침략자들은 1592년 4월 13일 드디여 20여만의 대병력으로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을 감행하였습니다.

놈들은 그때 경상도의 수군을 책임지고있던 원균이 비겁하게 우물쭈물 하는 사이에 그의 함대를 격파하고 경상도에 기여올라 우리 나라의 북쪽으로 쳐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적의 한 부대는 20일만에 서울을 강점하고 평양으로 밀려들었으며 다른 한 부대는 함경도지방까지 기여들어 살인과 략탈을 일삼고있었습니다.

참으로 온 나라와 우리 인민앞에는 큰 위험이 닥쳐왔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리순신장군은 수군을 거느리고 경상도 앞바다로 나가 일본침략자들을 족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전쟁 첫해 7월 8일 경상도 남쪽에 있는 작은 섬인 한산도의 앞바다에서 큰 바다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한산도 앞바다싸움

우리 함대는 리순신장군의 지휘밑에 견내량에 박혀있던 73척으로 무어진 적의 큰 함대를 발견하고 적들을 한산도 앞바다로 끌어내기 위한 유인전술을 썼습니다. 그것은 견내량은 바다가 좁고 물이 얕으며 바다속에 바위와 같은 암초가 많아서 큰배들이 마음대로 움직일수 없었기때문이였습니다.

또한 그곳은 륙지와 가까와 적들이 싸우다가 불리하면 산으로 도망칠수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리순신장군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적들을 한산도 앞바다로 끌어낸 다음 거북선을 앞세우고 일제히 공격을 들이대였습니다.

온종일 벌어진 이날 한산도 앞바다싸움에서 우리 수군은 73척의 적함선가운데서 도망친 14척의 적함선을 제외하고 59척을 까부시고 9 000여명의 적을 소멸하는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

우리 함대는 그후에도 여러 바다싸움에서 련속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적들을 멸망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었습니다.

그가운데서 제일 큰 바다싸움의 하나가 명량바다싸움이였습니다.

1597년 9월 중순 일본침략자들은 우리 수군을 압살하려고 330여척의 대함대로 울돌목(명량)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명량은 조선남해로부터 조선서해로 빠져나가는 좁은 길목이였는데 바다의 밀물과 썰물이 항상 소리를 내면서 거세차게 흘러 울

돌목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울돌목에 자리잡은 리순신장군의 지휘밑에 있던 우리 함대는 겨우 함선 12척과 수군 200명뿐이였습니다. 적아간의 력량대비는 30배나 되였지만 우리 수군병사들은 조금도 겁내지 않았습니다.



거북선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일떠선 우리 수군장병들은 포위공격해오는 적의 대함대와 결사전을 벌려 30여척의 적함선을 격파하고 수천명의 적을 족치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명량바다싸움의 이 빛나는 승리는 리순신장군의 능숙한 지휘밑에 우리 수군장병들이 유리한 곳을 미리 차지하고 결사전을 벌린 결과 이룩되였습니다.

이처럼 리순신장군은 능숙한 전술로 우리 수군을 지휘하여 임진조국전쟁의 승리를 보장하는데서 큰 역할을 한 애국명장의 한 사람이였습니다.

일본함대를 쳐부시는 싸움들에서 큰 역할을 한것은 또한 싸움배 거북선이였습니다.

리순신장군의 지휘밑에 우리 인민들이 만든 거북선은 길이가 35m, 높이가 5.2m, 너비가 11.8m 되는 세계 최초의 철갑선이였습니다.

거북선에는 화약의 힘으로 포탄을 날려보내는 여러 문의 포들이 설치되여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우에는 거북등모양의 철판을 씌우고 칼날과 송곳끝같은것을 빽빽이 꽂아 적들이 배우로 기여오를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배머리는 룡대가리처럼 무섭게 만들고 배안에서 피운 연기가 그 아구리로 뿜어나오도록 하였습니다.

거북선은 속도가 빠르고 매우 든든하였기때문에 적의 배를 들이받아도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거북선이 이처럼 위력하였기때문에 왜놈들은 우리 거북선을 보기만 해도 벌벌 떨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민들이 당시 그 어느 나라에서도 만들지 못한 세계 최초의 철갑선인 거북선을 만들어 왜놈들을 쳐부신것은 우리나라와 인민의 큰 자랑의 하나로 됩니다.

제 16 과. 홍의장군 곽재우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곽재우를 비롯한 애국자들은 의병을 일으켜 도처에서 왜적을 격멸하였습니다.》

임진조국전쟁시기 바다에서 리순신장군이 거느린 함대가 왜적을 족치면서 련속적인 승리를 이룩하고있을 때 륙지에서는 의병부대들이 조직되여 가는 곳마다에서 일본침략자들을 족치였습니다.

의병대가 처음으로 조직된 곳은 경상도지방이였습니다.

그것은 적들이 맨 처음 이 지방으로 쳐들어와 갖은 만행을 다하였기때문이였습니다.

왜적들이 쳐들어오자 평시에는 그렇게도 거드름을 피우며 악착스럽게 인민들의 피땀을 짜내던 봉건통치배들이 침략자들과 싸워볼 생각도 하지 않고 거의다 도망치고말았습니다.

그놈들에게는 나라와 인민의 운명보다도 제 한목숨이 더 귀중했던것입니다.

그러나 인민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민들은 나라와 고향땅을 지키기 위하여 곳곳에서 무장을 갖추고 왜놈들을 맞받아 용감히 싸웠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경상도지방인민들의 투쟁을 잘 조직지도한 사람이 곽재우였습니다.

경상도 의령에서 살던 그는 왜놈들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싸울 마음으로 1592년 4월말에 의병부대를 조직하였습니다.

그는 인민들에게 적과의 싸움에 나설것을 호소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지방장관들이 제 한목숨만 건지려고 나라의 존망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고 모두 도망치고있으니 이때 우리같은 백성들이 죽음으로 나라를 구원할수밖에 없습니다.》

곽재우가 처음 의병부대를 뭇자 수많은 인민들이 스스로 무장을 갖추고 찾아와 의병투쟁에 참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며칠사이에 의병대오는 1 000여명으로 자라나게 되였습니다.

의병부대는 조직된 후 수많은 전투들을 진행하여 왜적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습니다.

의병장 곽재우는 전투때마다 늘 백마를 타고 붉은 겉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홍의장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능란한 지휘와 기묘한 전술에 의하여 싸움마다에서 혼쌀이 난 일본침략자들은 곽재우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으며 그를 하늘에서 내려온 홍의장군이라고 하면서 몹시 무서워하였습니다.

곽재우가 이끄는 의병부대가 적들에게 큰 타격을 준 전투의 하나는 그해 6월에 있었던 솥나루전투였습니다.

솥나루는 경상도로부터 전라도로 가는 중요길목인 기강(락동강 지류)의 나루터였습니다.

왜적들은 바로 전라도로 침입할 목적밑에 이곳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솥나루부근에는 진펄이 많았기때문에 잘못하면 거기에 빠질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적들은 먼저 선발대를 보내여 솥나루의 지형을 정찰한 다음 진펄을 피하여 기본부대가 강을 건늘수 있게 강주변에 나무말뚝을 꽂아 표식을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병장 곽재우는 의병들을 시켜 표식말뚝을 진펄에 옮겨 꽂아 적들을 무서운 진펄밭으로 빠져들어가도록 하였습니다.

얼마후 이것을 알길 없었던 적의 선봉부대가 나타나 표식말뚝을 따라 솥나루를 건너가다가 무서운 진펄밭에 빠지고말았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강가에 숨어있던 의병들이 일제히 달려가 적의 선봉부대를 거의 전멸시켰습니다.

곽재우의병부대는 적의 주력부대가 인차 뒤따라 공격해올것을 예견하여 새로운 작전을 준비하였습니다.

정찰을 통하여 적의 행동방향을 미리 알게 된 의병장 곽재우는 의병부대의 주력을 솥나루동쪽 강기슭에 매복시키고 그 맞은편 강건너 서쪽언덕에는 가짜진지를 만들어놓은 다음 몇명의 군사를 배치하였습니다.

나머지 예비부대는 솥나루에서 10리 떨어진 유리한 곳에 매복시켰습니다.

그리고 붉은 옷을 입은 의병장으로 가장한 몇개의 유인조를 만들었습니다.

얼마후 적의 주력이 솥나루에 도착하였습니다.

적들은 강건너편의 가짜진지를 보고는 무서워 감히 강을 건늘 생각을 하지 못하고 눈먼 총질만 하였습니다.

이때 의병대의 기마유인조가 적진앞으로 달려들어갔습니다.

적장놈은 붉은 옷을 입은 홍의장군을 보자 그 력량이 얼마 안된다고 생각하고 일부 부대를 반격에로 내몰았습니다.

놈들의 추격병이 홍의장군을 뒤따라 멀리 사라지자 다시 북쪽과 서쪽에서 홍의장군이 또 나타나군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적장놈은 홍의장군을 잡으려고 7～8차례나 추격병을 내보냈으나 한놈도 살아돌아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적의 기본부대의 병력은 많이 줄어들게 되였습니다.

의병부대의 속임전술에 넘어가 적들이 당황해하고있을 때 매복하고있던 의병들이 일제히 돌격에로 넘어갔습니다.

혼란에 빠진 적들은 달아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솥나루동쪽기슭에 배치되여있던 의병의 주력부대와 예비부대가 련합하여 적들을 강기슭으로 내몰면서 족쳤습니다.

적들은 의병들의 드센 공격앞에서 총한방 제대로 쏘지 못하고 무리로 녹아났습니다.

이 솥나루전투에서 놈들이 어찌나 많이 죽었는지 적들의 시체가 강뚝과 강복판에 쌓여 강물이 흐르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솥나루전투이후에도 곽재우의병부대는 가는 곳마다에서 왜적들에게 무리죽음을 안겨줌으로써 임진조국전쟁승리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제 17 과. 계월향

임진조국전쟁시기 왜놈들을 반대하여 한몸바쳐 싸운 인민들속에는 평양의 계월향이라는 애국녀성도 들어있습니다.

조선침략의 불을 지른 왜놈들은 바다와 륙지에서 되게 얻어맞으면서도 평양부근까지 기여들었습니다.

《왜놈들이 대동강건너편까지 쳐들어왔다!》

사람들은 불안에 싸여 들끓었습니다.

그러나 평양에 있는 계월향의 집 담장안에서는《둥기당 둥기당당…》하는 가야금소리가 더욱 높아갔습니다. 흐느낌소리같기도 하고 무엇인가 끝없이 절규하는것 같기도 한 가야금의 울림은 사람들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철천지원쑤 왜놈들이 끝내 피묻은 발톱을 이 깨끗한 평양성에까지 들여놓았다지, 안된다. 내 설한풍속에서도 언제나 푸르싱싱한 소나무처럼 변치 않고 살리라.)

월향은 왜놈치는 싸움에 한몸 바칠 굳은 결심을 자기의 사랑하는 가야금에 담아 울렸습니다.

(김응서장군이 평양성을 지켜낼거야.)

월향의 가슴속에는 평안도 우방어사 김응서장군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차넘쳤습니다. 계월향은 고구려의 옛 수도인 유서깊고 경치 아름다운 평양에서 태여났습니다.

일찌기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 혼자서 삯빨래, 삯바느질을 하여 번 돈으로 근근히 살아갔지만 월향은 어려서부터 남달리 총명하여 글도 잘 짓고 그림도 잘 그리고 가야금도 잘 탔습니다.

인물곱고 재주가 뛰여났지만 가난한것이 죄가 되여 월향은 14살 어린 나이에 기생노릇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그는 봉건통치배들의 술자리에서 마음에 없는 웃음도 지어야했고 흥이 나지 않는 노래도 불러야 했습니다. 량반놈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여 된매를 맞으며 눈물속에 살아가는 인생이였습니다. 그러나 월향은 꺾이면 꺾일지언정 굽히지 않는 지조높은 평양성의 한떨기 꽃이였습니다.

그가 김응서를 알게 된것은 활쏘기경기날이였습니다.

김응서는 활쏘기에서 명사수로 이름을 떨치였습니다.

이날 계월향이 김응서의 특출한 활쏘기솜씨를 축하하여 가야금을 탔는데 이때부터 그와 인연이 맺어진것입니다.

왜놈들이 평양성에 들어온 다음날도 계월향은 불안한 마음을 달래며 여느날과 같이 가야금을 탔습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엔 목숨이 지는 마지막순간까지 떳떳이 싸울 결심이 굳어지고있었습니다.

바로 이날 낮이였습니다. 왜놈들이 갑자기 달려들더니 계월향을 소서비라는 왜놈장수앞에 끌어갔습니다.

금빛투구에 시뻘건 갑옷을 걸친 소서비놈은 보기에도 소름끼치였습니다.

《내가 무섭지 않은가?》

《무섭지 않다. 우리 나라에 기여든 도적놈, 봉변을 당하지 않으려면 당장 물러가라!》

《당돌한 년, 기생따위가 잔말말고 이제부터 나한테 와서 술시중이나 들어.》

계월향은 너무 분해 몸이 떨렸습니다. 죽고싶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값없이 그냥 죽을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것인가고 모대기고있을 때 김응서장군에게서 련락이 왔습니다.

적들속에 있는 유리한 조건을 리용하여 적정을 알려달라는 부탁이였습니다.

월향의 마음은 끝없이 행복하였습니다. 또 원쑤를 갚을수 있게 되였다는 생각에 가슴이 울렁거렸습니다.

다음날부터 월향은 적정탐지에 골몰하였습니다.

김응서는 계월향을 통하여 지금 평양성안의 왜놈들의 수가 약 2만명이라는것, 리순신의 대승리로 왜적들이 평양성쪽으로 더는 병력을 증강할 형편이 못되였다는것 그리고 소금을 비롯한 물자난과 질병으로 적들의 사기가 극도로 떨어졌다는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때 김응서장군의 지휘밑에 있는 1만명의 군사들과 의병들은 평양성을 포위하고 싸움준비에 전력을 기울이고있었습니다.

이 소문은 적들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언제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를 일이였습니다.

싸움이 지긋지긋하기만 한 놈들은 어서 집으로 돌아가고싶었습니다.

놈들은 앞을 다투어 대장놈에게 찾아가 집으로 보내줄것을 간

청하였습니다.

이래저래 심사가 뒤틀린 소서비놈은 계월향을 찾아가 잠시 시름이라도 잊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이무렵 월향은 또다시 김응서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적정과 적들의 화약창고위치를 알아달라는 부탁이였습니다.

때마침 소서비놈이 찾아온것은 월향에게 있어서 다행이였습니다.

월향은 소서비놈을 통해 왜적 7 000명이 중화로 이동해갔다는것과 평양성안에 있는 1만여명의 왜군은 전염병에 걸려 죽어간다는것을 알아냈습니다.

다음날 월향은 소서비놈을 끼여 보통문과 정양문, 칠성문 등으로 끌고다니며 성문근처마다에 화약고가 있다는것도 알아냈습니다.

그때로부터 사흘째 되던 날 거리에서 갑자기 뢰성벽력과 같은 소리가 나면서 밤하늘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모두 성문쪽이였습니다. 그것은 화약고가 폭발하는 소리였습니다.

(나라를 위한 성스러운 싸움에 나도 보탬을 주었구나.)

말할수 없는 기쁨이 월향의 가슴속에 차넘쳤습니다.

이날 월향은 의로운 싸움에 더 큰 보탬을 주리라 굳게 결심하였습니다.

그후 월향은 김응서장군과 긴밀한 련계를 가지고 적장 소서비놈을 처단할 빈틈없는 계획을 세우고 실현해나갔습니다.

적장 소서비놈을 처단하는것은 적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평양성싸움의 결정적인 승리를 이룩하는데서 중요한 고리였습니다.

월향은 기꺼이 자기 한목숨을 바치기로 다짐하였습니다.

어느날 계월향은 독한 술과 푸짐한 음식을 차려 소서비놈을 비롯한 왜적놈들을 대접하고 위안하면서 마음을 푹 놓게 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왜적놈들은 만취되여 하나, 둘 곤드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침 소서비놈도 비칠거렸습니다.

이제 시간을 더 끌면 날이 밝아 행동에 불리해질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한 조선군 장수가 그놈앞에 나타났습니다.

눈은 불을 뿜는듯 하고 장검에선 서리발이 일었습니다.

이미 계월향이 자기 오빠라고 소개했던 김응서장군이였습니다.

천하를 한손에 쥘듯 기고만장하던 소서비놈이 부질없는 객기를 부리려 군도에 손이 가는 순간 김응서의 장검이 번뜩했습니다.

그러자 원쑤놈의 더러운 몸뚱이가 방바닥에 딩굴었습니다. 이렇게 계월향과 김응서장군은 소서비놈을 처단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월향은 왜적들의 칼에 맞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소서비를 처단하는 김응서

그후 왜놈들은 평양성에서 쫓겨났습니다.

사람들은 평양성싸움의 승리에 크게 이바지한 계월향을 잊지 못해 그가 눈을 감은 모란봉기슭을 월향동이라 부르며 그의 애국심을 길이 전해오고있습니다.

제18과. 행주산성싸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조선인민은 예로부터 침략자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조국을 보위하는 성스러운 싸움에 한사람같이 일어나서 외래침략자들을 물리쳤으며 조국을 영웅적으로 방위하면서 반만년의 슬기로운 력사를 창조하였습니다.》

임진조국전쟁이 한창 벌어지던 1593년 2월이였습니다.

20여만의 대군을 몰아 불의에 쳐들어온 왜놈들은 불과 두석달 동안에 우리 조국땅을 거의 휩쓸다싶이 하였습니다.

봉건통치배들이 당파싸움과 권력다툼만 일삼고 국방력 같은것은 돌아보지도 않았기때문에 병영들은 텅 비고 창과 칼, 활들은 녹쓸고 좀먹었습니다.

거의 방비가 없었던 우리 나라는 왜군의 발길이 닿는대로 재더미가 되였고 피는 흘러 내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왕과 조정의 대신들은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서울을 버리고 평양으로 옮겨갔으며 왜군이 대동강건너편에 나타나자 또다시 의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애국적명장들과 인민들은 놈들을 도처에서 족쳤습니다.

그리하여 북쪽에서 쫓겨내려온 놈들은 서울에 모여들어 부대를 모아가지고 남으로 도망칠 준비를 다그쳤습니다.

이때 서울 서쪽에 있는 행주산에서는 도망쳐내려오는 적들을 족쳐버리기 위한 싸움준비가 한창이였습니다.

놈들이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 때여서 군사들의 마음은 조급하였습니다.

행주산에는 권률이 거느린 우리 군사 2 300명이 있었고 서울에는 왜놈군사가 3만명 있었습니다.

병력으로 따지면 우리 군사는 엄청나게 적었고 왜군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당시 행주산을 덕양산으로 부르고있었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많은 적들을 요정내는데 유리한 지형을 고르려

나섰던 권률은 덕양산을 맞춤한 곳으로 정하고 싸움준비를 하게 하였습니다.

지형은 매우 유리하였습니다.

행주산에서는 동서북의 넓은 벌판을 한눈에 볼수 있었고 산에는 나무보다 돌이 더 많았습니다.

또한 샘물이 많았고 뒤에는 덕양천이 있어 군량을 쉽게 운반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이 없었습니다. 언제 쳐들어올지 모를 적을 막기 위해서는 한시바삐 성을 쌓아야 하였습니다.

군사들은 밤잠을 잊고 밥도 서서 먹으면서 일하였습니다. 고양이손도 빌릴만큼 마음이 조급하여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성터로 사람들이 하얗게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주변마을에서 사는 녀인들과 로인들이였습니다.

《우리도 돕게 해주시와유.》

그들은 권률을 붙들고 간절히 청원하였습니다.

권률은 가슴이 뭉클하고 눈굽이 찌르르해졌습니다.

《고맙소, 고맙소. 우리는 지금 성쌓는 일이 급하오. 도와주시오.》

《대장어른, 무슨 말씀을, 고마운건 우리들이요. 우리는 우리를 밀어보낼가봐 걱정했소이다. 힘껏 돕겠소이다.》

한 할머니가 녀인들과 로인들앞에 나서며 말하였습니다.

녀인들은 활기에 넘쳐 바구니와 함지에다 흙과 돌을 퍼담아 이고 달렸습니다. 신발도 거치장스러워 맨발로 달렸습니다.

그런데 바구니와 또아리가 돌에 찢겨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집집마다 바구니가 거덜이 났습니다.

녀인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의논하였습니다.

《이것봐요. 한쪽에서 또아리와 해진 바구니를 수리하는 조가 있어야 하지 않을가요?》

《거참, 좋은 생각이구만.》

그리하여 손재간있는 사람들로 수리조가 무어졌습니다.

그러나 녀인들은 성차지 않았습니다. 바구니로써는 돌을 많이 나를수 없거니와 또 불편하기도 하였습니다.

(일을 좀 더 쉽게 하고 많이 나르는 방법은 없을가?)

이때 앞치마에 돌을 가득 담아가지고 나르는 녀인이 나타났습니다.

(옳지, 앞치마를 치마반폭만큼 크게 해서 덧입고 거기다 돌을 담아 날라보자.)

녀인들은 환성을 올렸습니다.

그날 저녁에 녀인들은 질긴 무명천으로 앞치마를 든든하게 만들었습니다.

거기다 돌을 담으니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다니는것보다 훨씬 편했고 더 많이 담겼습니다.

다음날부터 녀인들은 모두 앞치마를 입고 나와 성수가 나서 일하였습니다.

그들을 보는 군사들의 마음은 더 든든해졌습니다.

한 군사가 《여러분네들, 이제부터 우리 행주산의 훌륭한 녀인들의 마음이 담긴 저 앞치마를 행주치마라고 부르기요.》하고 소리쳤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새벽 성쌓는 일이 끝났습니다.

그새 눈 한번 못 붙이고 일을 다그쳐댄 보람은 컸습니다.



행주산성싸움

이때였습니다. 행주산성을 향하여 왜놈들의 기마대가 뽀얀 먼지를 일구며 달려오고 그뒤를 따라 수많은 왜놈들이 벌판을 새까맣게 덮으며 달려오고있었습니다.

놈들은 먼저 조총탄을 우박같이 퍼부으면서 삼면으로 기여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수백수천발의 조총소리와 함께 행주산은 금시 안개속에 잠긴듯 초연으로 덮이고말았습니다.

놈들을 성밑에까지 바싹 접근시킨 우리 군사들은 다시 북소리를 신호로 적들에게 화살을 날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저기에 걸어놓은 포들에서는 포탄을 날리였습니다.

녀인들은 크고작은 돌들을 날라다 놈들에게 굴리였습니다.

《옛다, 받아라!》

《이것도 받아라!》

녀인들의 청높은 웨침소리는 우리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아주었습니다.

전투는 갈수록 격렬하였습니다.

녀인들은 주먹밥을 해이고 끓인 물까지 들고 군사들을 찾아와 힘을 주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계속되는 전투속에 한낮이 기울었을 때였습니다.

《왜놈들의 군대가 성을 넘었다!》 하는 다급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군사들은 당황해났습니다.

이때였습니다.

녀인들이 행주치마에 돌을 안고 달려와 놈들에게 던져댔습니다.

갑자기 날아오는 돌벼락을 맞은 놈들은 비명을 지르며 거꾸러졌습니다. 그것을 본 우리 군사들은 사기가 나서 장검을 빼들고 달려나갔습니다.

마침내 성안에 들어왔던 적들은 전멸되였습니다.

놈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홉차례나 공격해왔지만 그때마다 늘어나는것은 저들의 시체뿐이였습니다.

행주산성싸움은 임진조국전쟁의 승리를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전투의 하나로서 우리 나라 력사에 행주의 큰 승리라고 기록되여오고있습니다.

놈들은 이 전투에서 3분의 2의 군사를 잃었습니다.

단 2～3일어간에 돌과 흙으로 쌓은 성에서 적은 군사로 적 3만대군을 격파한 행주산성싸움의 승리는 이곳 녀인들의 투쟁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백년이 흐른 지금도 사람들은 행주산성싸움을 말할 때 먼저 행주산성녀인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행주치마를 생각하군 합니다.

제 19 과. 뛰여난 화가 김홍도

옛날부터 우리 나라에는 그림을 잘 그리는 이름있는 화가들이 많았습니다.

그가운데서도 김홍도는 지금으로부터 200여년전에 활동한 뛰여난 화가의 한 사람이였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집이 가난하여 끼니를 제대로 잇지 못하는 때도 있었지만 그림공부에 열중하여 10살 때에 벌써 뛰여난 그림솜씨를 나타냈으며 15살 때부터는 이미 당당한 화가로서 이름을 날리였다고 합니다.

뛰여난 화가였던 김홍도는 우리 나라의 아름다운 자연풍경과 동식물을 잘 그렸지만 특히 인물풍속화를 새롭게 개척하여 이 분야에서 뛰여난 그림솜씨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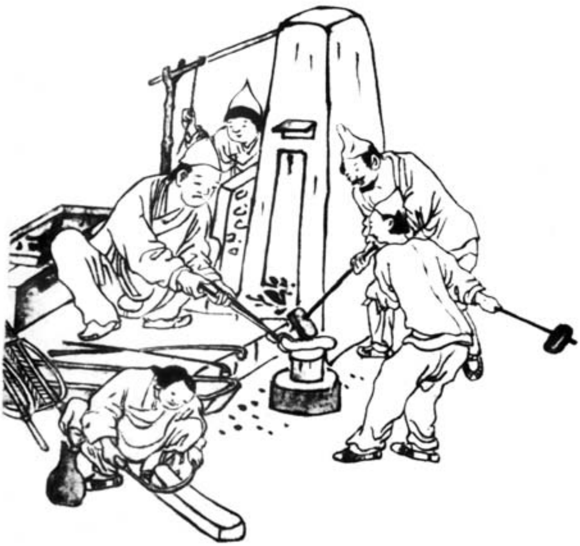
그는 일생동안 많은 그림을 그리였는데 그가운데서 《대장간》, 《씨름》, 《춤》 등이 잘된 그림으로 널리 알려져있습니다.

김홍도는 자기의 그림들에서 주로 소박하고 부지런한 우리 인민들의 생활을 진실하게 그렸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리조시기 화가 안견이나 김홍도의 그림을 보면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였을뿐아니라 필치가 힘있고 아름답습니다.》

김홍도의 그림 《대장간》은 대장간에서 벼림질을 하는 장면을 그린것입니다.



대 장 간

달아오른 쇠불이를 집게로 잡고 그것을 조절하느라고 입귀마저 씰룩거리는 좌상로인과 메를 방금 내리친 텁석부리, 몸을 꼬며 메를 휘두르는 젊은이, 신이 난 메질에 맞추어 열심히 풀무질을 하는 젊은이, 지게를 벗어놓고 낫을 가는 농군총각, 자기 일에 열중하는 사람들의 얼굴마다에는 로동의 기쁨이 어려있습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쾅쾅》내리치는 메질소리와《써각써각》낫가는 소리가 들리는듯 합니다.

이 그림은 부지런하였던 옛날 우리 인민들이 일하는 모습을 실지 눈앞에서 보는것처럼 아주 생동하게 잘 그렸습니다. 이것은 화가의 높은 그림솜씨를 말하여주고있습니다.

김홍도의 그림《씨름》은 두 씨름군을 가운데 놓고 많은 구경군들이 빙 둘러앉아 씨름을 흥미있게 구경하는 장면을 그린것입니다.

씨름군의 한 사람은 이를 악물고 적수를 멧다꽂으려고 하는데 적수는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갖은 애를 다 쓰고있습니다.

손에 땀을 쥐고 이 아슬아슬한 장면을 구경하느라 구경군들은 모두 씨름판에 정신을 팔고있는데 엿장사총각만은 엿팔생각뿐인듯 돌아서서 먼 산만을 바라보고있습니다.



씨 름

이처럼 이 그림은 각이한 사람들의 모습을 서로 대비하여 보여주면서 아슬아슬한 순간의 씨름판을 잘 형상하였습니다.

그림 《춤》은 북, 장고, 피리, 저대, 새납소리에 맞추어 멋들어지게 춤을 추는 장면을 그린것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춤추는 사람들의 몸가짐을 잘 그렸으며 어깨를 으쓱거리며 불어대는 풍악쟁이들의 감정도 잘 나타내였습니다.

김홍도의 그림가운데는 이밖에도 《마당질》, 《서당》 등 여러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김홍도는 그 시기 우리 인민들이 부지런하게 일하는 모습과 그들의 락천적인 생활모습을 잘 그렸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화가들이 꽃이나 새, 나비나 자연풍경 등 봉건통치배들이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고있을 때 김홍도만은 부지런한 우리 인민들의 생활과 감정을 생동하게 잘 그려 그림분야에서 큰 공적을 이룩하였습니다.

제 20 과. 홍경래와 평안도농민전쟁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압박이 있는 곳에는 반항이 있는 법이다. 피압박인민들이 자신의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불가피하다.》

1811년에 평안도지방에서는 홍경래의 지휘밑에 큰 농민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방 인민들은 다른 지방 인민들보다 리조봉건통치배들에 대한 원한이 높았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먼저 서울의 봉건통치배들이 이 지방사람들을 더 천대하고 악착하게 착취하였기때문이였습니다.

봉건통치배들은 평안도의 일반 백성들을 상놈중에서도 제일 상놈이라고 하면서 착취와 억압을 마음대로 하였습니다.

평안도인민들속에서 봉건통치배들에 대한 원한이 더 높아지게 된것은 또한 이 지방 인민들이 조선과 청나라로 오가는 두 나라 사신들의 뒤바라지때문에 큰 피해를 당하였기때문입니다.

바쁜 농사철과 가난한 살림에도 관계없이 아무때나 내몰리는 사신들의 짐나르기와 그들의 잠자리와 먹을것을 마련해주어야 하는 일은 매우 고통스러운것이였습니다.

그리하여 서울의 봉건통치배들에 대한 이 지방 인민들의 원한은 날이 감에 따라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때 홍경래는 평안도지방에서 큰 농민전쟁을 준비하였습니다.

홍경래는 가산군 다복동(평북도 운전군)에서 금을 캔다는 소문을 내여 1천여명의 농민들을 모여놓고 비밀리에 군사훈련을 시키는 한편 무기와 식량을 마련하였습니다.

일정한 준비를 갖춘 홍경래는 농민군지휘부를 꾸리고 자신이 총 대장이 되였습니다.

1811년말 농민군은 마침내 농민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후 농민군은 두패로 나누어 남쪽과 북쪽으로 쳐나갔습니다.

홍경래가 지휘하는 주력부대는 가산(운전), 박천, 정주를 점령하고 청천강연안으로 진출하였습니다.



농민전쟁을 앞둔 농민군(다복동에서)

부대장이 지휘하는 한 부대는 곽산, 선천, 철산, 룡천을 점령하면서 북으로 진격하였습니다. 이리하여 농민전쟁을 일으킨지 열흘만에는 청천강 북쪽의 거의 모든 지역을 다 차지하였습니다.

농민군은 가는 곳마다에서 봉건통치배들을 족치고 창고를 열어 인민들에게 쌀과 천들을 나누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인민들은 농민군을 적극 지지하고 도와주었습니다.

농민군이 고을에 쳐들어갈 때마다 인민들은 성문을 열고 그들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농민군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평안도에서 농민폭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자 서울의 봉건통치배들은 많은 토벌군을 보내여 농민군을 치게 하였습니다.

안주에는 2 000여명의 토벌군이 모여들었습니다.

놈들은 청천강을 건너 송림에 있는 홍경래가 지휘하는 농민군을 공격하였습니다.

송림들판에서는 2 000여명의 토벌군과 800명의 농민군사이에 치렬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농민군은 용감히 싸워 적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으나 엄청나게 많은 정부군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였습니다. 농민군은 정주성으로 물러나 새로운 싸움준비를 갖추었습니다.

북쪽으로 진격하던 농민군도 정주에 들어오게 되였습니다.

정주성안에는 2 000여명의 농민군이 모였습니다.

정주성에서는 농민군과 정부군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다음해 1월 초순부터 8 000명으로 구성된 정부군은 정주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대포까지 쏘아대며 여러차례나 발악적으로 공격해왔습니다.

농민군은 그때마다 용감히 싸워 놈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성문을 열고 대담하게 적진속으로 뚫고들어가 적을 무리로 쓸어눕히군 하였습니다.

이런 싸움이 석달동안이나 계속되였습니다. 날이 감에 따라 농민군의 처지는 어렵게 되였습니다.

성안에 먹을것이 다 떨어져가고 무기와 무장들도 부족하였습니다.

그러나 농민군은 어려운 조건에서도 굴하지 않고 계속 용감히 싸웠습니다.

아무리 발악을 해도 뜻을 이룰수 없게 된 정부군은 이번에는 몰래 성밑까지 땅굴을 파고 들어와 거기에 많은 화약을 다져넣고 폭발시켰습니다.

삽시에 성의 한쪽 모퉁이가 뭉청 무너졌습니다.

성이 무너지자 놈들이 성안으로 물밀듯이 쓸어들어왔습니다.

농민군은 적들을 맞받아 결사적으로 싸웠습니다.

그러나 농민군은 몇배나 많은 적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마지막 싸움을 지휘하던 홍경래도 적탄에 맞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부군은 성을 점령하고 성안에 있던 2 000여명의 농민군과 인민들을 모조리 학살하였습니다.

넉달동안 진행된 평안도농민전쟁은 비록 실패하였으나 착취와 억압에 날뛰던 봉건통치배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인민들의 투쟁을 크게 고무하였습니다.

제 21 과. 김정호와 《대동여지도》

《대동여지도》는 지금으로부터 140여년전에 애국적인 지리학자인 김정호가 만들어낸 조선지도입니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우리 나라는 오래동안 똑똑한 지도를 가지고있지 못하였습니다.

남다른 애국심을 가지고있었던 김정호는 젊어서부터 보다 정확한 조선지도를 만들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지도가 있어야 나라를 더 빨리 발전시키고 또 자기 국토를 잘 알아야 국방을 강화하여 다른 나라 침략자들도 더 잘 물리칠수 있었기때문이였습니다.

그래서 김정호는 정확한 조선지도를 만들 자기의 생각을 봉건정부에 제기하였으며 그를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까지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썩어빠진 봉건통치배들은 그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을뿐아니라 오히려 그를 박해하였습니다.

그는 굴하지 않고 자기 혼자의 힘으로라도 꼭 정확한 조선지도를 만들어내리라 굳게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혼자의 힘으로 우리 나라의 전국지도를 정확히 만들어낸다는것은 그리 헐한 일이 아니였습니다.

그때에는 아직 교통이 불편하고 또 지도를 만드는 기구나 도구도 변변한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김정호는 물러서지 않고 모진 곤난을 이겨내면서 나라의 구석구석을 찾아다니였고 매 지방의 땅생김과 길, 산과 강, 도시와 마을들을 하나하나 그려나갔습니다. 그는 백두산과 같은 높고 험한 산에도 두번씩이나 오르내리였으며 바다 멀리에 있는 제주도와 외진섬에도 찾아가 빠짐없이 조사 측량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앞서 만들어진 지도와 지리책들도 깊이 연구하였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의 현지답사와 고심어린 탐구와 꾸준한 노력에 의하여 정확한 조선지도를 만드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김정호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완성한 지도를 찍어내는데 달라붙었습니다.



대동여지도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지도를 볼수 있었기때문이였습니다.

그는 생활형편이 몹시 곤난한 조건에서도 지도를 출판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쳤습니다.

그는 직접 나무판에 복잡한 지도를 하나하나 새기고 먹을 발라 종이에 찍었습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그에게는 외딸이 있었는데 그 딸은 근면하고 재능있는 문필가였다고 합니다.

그는 늦도록 시집을 안가고 아버지의 연구사업을 도와 직접 나무판에 글을 쓰고 글자들을 하나하나 새기였을뿐아니라 집재산이 다 떨어져 비용이 모자랄 때에는 어머니와 함께 기름장사, 광주리장사를 하여 그 비용을 보장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김정호와 그 가정이 지도제작사업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왔는가 하는것을 말해줍니다.

이처럼 김정호는 근 30년간의 현지답사와 고심어린 탐구와 노력으로 1861년에는 마침내 《대동여지도》라는 정확한 조선지도를 세상에 내놓을수 있었습니다.

《대동여지도》는 정밀성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성도 있으나 오늘의 조선지도에 가까운 비교적 정확한 지도였습니다.

이 지도는 모두 22개의 작은 지역으로 나누어 출판하였는데 이것을 모두 련결하여 합하면 하나의 큰 조선지도가 되였습니다.

《대동여지도》는 크기가 $33m^2$인데 이 지도의 자줄임은 16만 2 000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안에는 산줄기와 산봉우리, 강과 호수, 길, 섬, 바다, 항구, 바다길들이 밝혀져있습니다.

그리고 도와 군들이 자리잡고있는 곳과 그밖에 우리 나라의 지리나 력사와 관련되는 수많은 귀중한 자료들도 표시되여있습니다.

《대동여지도》는 정확성에 있어서 현대지도에 비할수는 없지만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지도제작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대동여지도》는 그때 우리 나라 지리와 력사를 연구하는데서 귀중한 자료로 됩니다.

이처럼 훌륭한 우리 나라의 지도를 만든것은 우리 인민의 큰 자랑입니다.

그러나 애국적인 지리학자였던 김정호는 나라의 지도를 만들어 국가비밀이 새나가게 하였다는 터무니없는 죄를 쓰고 감옥에서 고생하다가 억울하게 생을 마쳤습니다.

참으로 봉건통치배들이야말로 애국자도 가려볼줄 모르는 부패무능한 인민의 원쑤들이였습니다.

제 22 과. 대동강에 처박힌 《셔먼》호

우리 나라는 금은보화가 가득하고 경치가 아름다와 예로부터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곳에 자리잡고있습니다.

때문에 다른 나라 침략에 이골이 난 제국주의침략자들은 오래전부터 우리 나라에 눈독을 들이고 침략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해왔습니다.

그가운데서도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인 미국침략자들이 맨 앞장에 섰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미제국주의는 〈샤만〉호의 침입으로부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100여년동안이나 우리 나라를 침략하여온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백수십여년전인 1866년 7월 7일(양력 8월 16일) 미국침략자들이 군함《셔먼》호를 끌고 우리 나라에 기여들었습니다.《셔먼》호에는 4문의 대포와 많은 무기로 무장한 수십명의 미국놈들이 타고있었습니다.

《셔먼》호가 우리 나라에 침입한 목적은 군함과 대포소리로 리조봉건통치배들을 위협하여 불평등조약을 맺음으로써 략탈적인 조선침략의 길을 열어놓으려는데 있었습니다.

침략선《셔먼》호는 이 침략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대동강을 따라 평양쪽으로 거슬러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리조봉건정부가 대표를 보내여 여러차례 물러갈것을 요구하였으나 놈들은 들은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을 너무나도 얕잡아보았기때문이였습니다.

흉악한 침략선《셔먼》호는 두루섬을 지나 평양성이 가까이 바라보이는 양각도가 있는 곳까지 기여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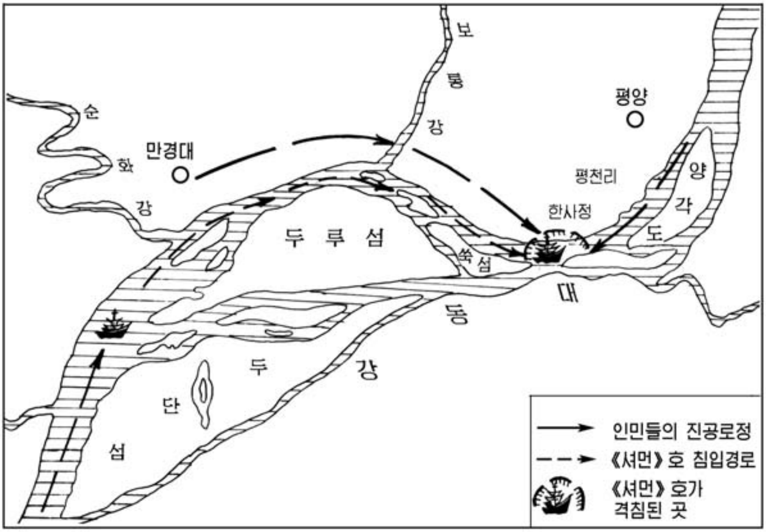
이때 미국놈들은 강도질을 마음대로 하였습니다.

미국놈들은 대동강을 오르내리는 조선사람들의 배들을 붙잡아 식량과 기타 물건들을 모조리 빼앗아내는 한편 강변에 있는 마을들

에 기여올라 사람들을 죽이고 물건들을 략탈하였습니다.

또한 총과 대포를 마구 쏘아대여 숱한 조선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갔습니다. 이뿐이 아니였습니다.

미국놈들은 조선의 군대까지 해치였습니다.



《셔먼》호 격침도

놈들은 근무를 서고있던 조선군인 3명을 붙잡아 2명은 물에 던져죽이고 한명은 끌고가 《셔먼》호안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뻔뻔스럽게도 쌀 1 000섬과 많은 량의 금, 은, 인삼 등을 가져다 놓아야 군인도 놓아주고 조선에서 물러가겠다고 하였습니다.

날강도들만이 할수 있는 강도적인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조선봉건정부에서는 침략자들을 단숨에 요정낼수 있는 원만한 준비를 갖추지 못하였기때문에 《셔먼》호를 쳐부시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있었습니다.

이러한 때 슬기롭고 용감한 우리 인민들이 침략자들을 쳐물리치기 위한 성스러운 싸움에 떨쳐나섰습니다.

이 투쟁의 앞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증조할아버님이신 김응우선생님께서 서계시였습니다.

남달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시였던 김응우선생님께서는 미국침략선 《셔먼》호가 대동강에 기여들자 인차 만경대인민들

을 불러일으켜 싸움마당에 떨쳐나서게 하시였습니다. 그리하여《셔먼》호가 머물러있는 대동강주변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평양에 주둔해있던 봉건정부의 군대들도 힘을 합치였습니다.

원쑤들을 쳐물리치기 위한 싸움에 일떠선 인민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화승총과 활과 같은 무기를 가지고서는 발전된 군함에 신식대포까지 갖춘 원쑤를 쳐부시기란 쉬운 일이 아니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열렬한 애국자이신 김응우선생님께서 원쑤놈들을 단숨에 요정낼 묘한 전술을 생각해내시였습니다.

그것은 불붙는 나무단을 가득 실은 불배를 강물에 띄워 적함을 불태우는 화공전술이였습니다.

드디여 김응우선생님의 지휘밑에 원쑤놈들을 소탕하기 위한 총공격전이 시작되였습니다.

강 웃쪽에서는 배우에 나무단들을 가득 싣고 거기에 류황과 기름을 뿌린 다음 불을 달아 《셔먼》호가 있는쪽으로 련속 띄워내려보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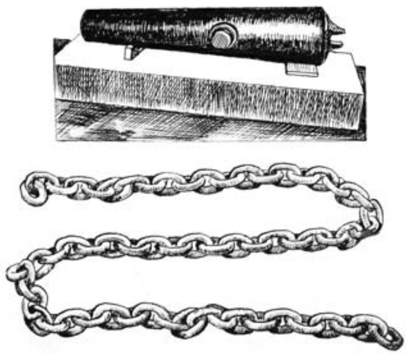
그리고 강변에서는 군대와 인민들이《셔먼》호를 향해 총과 활로 맹렬한 사격을 가하였습니다.

바빠맞은 놈들은 도망치려고 서둘렀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썰물로 강물이 줄어들고 배밑이 강바닥에 닿아 조금도 움직일수 없게 된것입니다.

불배들이 삼단같은 불길을 일으키며 《셔먼》호에 가 부딪쳤습니다.



《셔먼》호에 설치되였던 대포와 닻줄

《셔먼》호는 삽시에 불길에 휩싸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윽고 《셔먼》호에서는 《쾅-》 하는 요란한 폭발소리가 울렸습니다.

배에 있던 화약고에 불이 닿아 터졌던것입니다.

《셔먼》호는 불길에 휩싸인채 물속에 가라앉기 시작하였습니다.

침략선에 탔던 원쑤놈들도 모두 불에 타거나 물에 빠져죽었습니다.

이처럼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 미제침략자들은 우리 나라에 대한 첫 침략에서부터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하였습니다.

오늘도 평양에 있는 조선혁명박물관과 조선중앙력사박물관에는 그때 《셔먼》호에 설치되였던 대포와 닻줄이 그대로 보관되여있습니다.

제23과. 남연군의 무덤을 파헤치려던 해적의 무리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첫 침략기도에서부터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과 략탈만행을 끊임없이 감행하였으며 조선인민앞에 영원히 씻을수 없는 수많은 죄악들을 저질렀습니다.》

미국침략자들은《셔먼》호침입의 참패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 더욱더 흉악한 침략책동에 매여달렸습니다.

놈들은 그때 나라의 실권을 잡고있던 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연군의 무덤을 파헤치고 그 유골을 도적질해냄으로써 그것을 미끼로 하여 우리 나라에 불평등한 조약을 강요하려고 하였습니다.

옛날부터 조상을 잘 모시는 우리 조선사람의 아름다운 풍속까지도 제놈들의 더러운 침략목적실현에 써먹으려 한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너절하고 악독한 미제날강도들만이 생각해낼수 있는것이였습니다.

미국침략자들은 이 더러운 침략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먼저 침략선 한척을 평안도와 황해도의 주변바다에 침입시켜 여러가지 강도적만행을 감행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민들의 주의가 이곳에 쏠리도록 하자는것이였습니다.

이러한 틈을 타서 1868년 4월 젠킨스를 두목으로 하는 100여명의 유골도적단이 침략선《챠이나》호를 타고 충청도 아산만에 기

여들었습니다.

이어 유골도적단은 륙지로 기여올라 남연군묘지가 있는 덕산군 가동으로 향하였습니다.

놈들은 목적지로 가는 동안에도 길옆의 관청을 습격하고 파괴하는 만행을 감행하였습니다.

4월 18일 저녁때가 거의 되여서야 목적지에 도착한 강도무리들은 서둘러 무덤을 파헤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놈들의 이러한 흉악한 책동은 처음부터 우리 인민들의 강력한 반항에 부딪쳤습니다.

놈들의 침략만행을 목격한 가동인민들이 호미와 괭이를 들고 놈들에게로 달려가 견결히 항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무덤을 파헤치던 미국놈들은 날이 밝자 우리 인민들의 징벌이 무서워 목적을 이루지 못한채 도망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미국놈들의 만행

미국놈들은 도망치면서도 강도의 본성 그대로 마을에 달려들어 인민들의 가장집물을 파괴하고 빼앗아가는 날강도행위를 감행하였습니다.

가동에서 뜻을 이루지 못한 놈들은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기어이 조선정부와 《조약》을 맺어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놈들은

인천앞바다에 있는 영종도에 기여들었습니다.

놈들은 뻔뻔스럽게도《삼가 말하건대 남의 무덤을 파는것은 례의가 없는 행동에 가깝지만 무력을 사용하여 백성을 고통속에 빠뜨리기보다는 나으므로 하는수 없이 그렇게 하였다.》고 지껄이면서 통상《조약》을 맺자고 강박하였습니다.

조선봉건정부가 이 날강도적인 요구를 물리치자 놈들은 영종도의 마을에 달려들어 소를 비롯한 집짐승들을 략탈하는 만행을 감행하였습니다.

이때 이 섬을 지키던 100여명의 수비병들이 놈들에게 된 타격을 안기였습니다. 이에 바빠맞은 미국놈들은 제 소굴로 도망치고말았습니다.

결국 젠킨스놈의 지휘밑에 감행된 미국침략자들의 흉악무도한 유골도굴계획은 실패하고말았습니다.

놈들이 감행한 이 흉악한짓은 미국놈들이야말로 저들의 침략목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짐승같은놈들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제 24 과. 《운양》호의 도발사건

일본은 오래전부터 조선을 침략할 기회를 엿보고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아직 조선을 침략할만 한 힘을 가지고있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그때에는 리조봉건국가의 권력을 틀어쥐였던 대원군이 일본놈들에게 곁을 주지 않았습니다.

일본놈들이 조선에 대한 침략책동을 본격적으로 감행하기 시작한것은 1873년 고종왕의 처인 민비가 대원군(민비의 시아버지)으로부터 권력을 빼앗아낸 다음부터였습니다.

그것은 이때부터 민비가 일본놈들에게 빌붙고 굴복하는 길로 나갔기때문이였습니다. 민비는 권력을 잡자마자 지난날 일본의 조선침략을 막기 위하여 노력한 일부 관리들을 내쫓고 목을 잘라 일본놈들이 보는데다 걸어놓기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은 적들앞에 무릎을 꿇는 로골적인 투항행위였습니다.

이러한 때 미국놈들이 일본놈들의 조선침략을 적극 도와주었습니다.

미국놈들도 여러차례나 조선에 기여들었다가 우리 인민들의 용감한 투쟁에 의하여 그때마다 모두 쫓겨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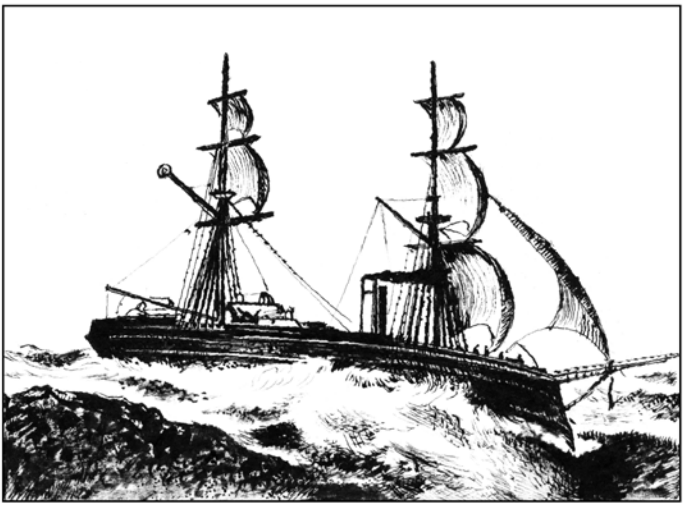
제 혼자의 힘으로는 조선을 강점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미국놈들은 교활하게도 일본을 도와 조선을 먹게 한 다음 제놈들도 한몫 단단히 차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미국놈들은 일본놈들에게 2척의 군함과 숱한 탄약 그리고 침략방법과 경험까지 가르쳐주면서 조선침략을 적극 부추겨주었습니다.

만단의 침략준비를 갖춘 일본침략자들은 1875년 8월 군함《운양》호를 끌고 강화도 앞바다로 쳐들어왔습니다.

일본침략자들이 강화도로 쳐들어온 목적은 조선봉건정부를 위협하여 침략적인 조약을 체결하며 나아가서 조선을 강점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자는데 있었습니다.

강화도앞바다에 침입한 일본놈들은 싸움을 걸기 위해 먼저 수많은 졸개들을 작은 배에 실어 강화도의 초지진포대로 접근시켰습니다.



침략선 《운양》호

초지진은 서울로 들어가는 길목을 지키는 중요한 포진지였습니다.

그러니 이 중요한 포대의 턱밑까지 다른 나라 군함이 침입하였다는것은 큰 비상사건이 아닐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초지진포병들은 접근해오는 일본놈들을 발견하는 즉시로 포를 쏘아 불벼락을 안기였습니다.

이때라고 생각한 일본놈들은《운양》호를 초지진가까이에 가져다대고 포를 마구 쏘아대기 시작하였습니다.

초지진의 조선포병들도 적을 향해 맹렬한 사격을 들이댔습니다.

가렬한 싸움은 2시간동안이나 계속되였습니다.

조선포병들의 강력한 반격에 의하여 된타격을 받은 일본놈들은 이번에는 작은 섬인 항산도와 영종도에 달려들어 조선군대와 죄없는 인민들을 마구 죽이고 살림집들을 모조리 불태워버리는 만행을 감행하였습니다.

일본놈들의 이와 같은 무장도발사건을《운양》호사건이라고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일본은 〈운양〉호사건을 구실로 1876년에 침략적이며 불평등적인 〈강화도조약〉을 조작하고 우리 나라를 예속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운양》호사건은 일본놈들이야말로 세상에 드문 날강도의 무리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놈들은 이 사건에서 제놈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더 큰 무력을 이끌고 우리 나라에 쳐들어왔습니다.

일본놈들은 다음해 1월 7척의 군함에 800여명의 침략군을 태우고 강화도에 쳐들어와 리조봉건정부를 위협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리 꾸며가지고 온《조약》문을 내놓으면서 무조건 도장을 찍으라고 강박하였습니다.

말그대로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이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인민들은 모두 격분하여 당장 일본놈들을 쳐서 몰아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인민들의 기세는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비겁한 봉건통치배들은 일본놈들앞에 무릎을 꿇고 1876년 2월 3일 《조약》에 도장을 찍고야말았습니다.

《조약》에서는 조선의 2개 항구를 열어 일본놈들이 마음대로

와서 살면서 무역을 할수 있게 하며 조선의 연해를 마음대로 측량할수 있게 한다는것, 일본놈들이 조선에서 죄를 졌을 때에는 일본에 넘기여 조사판결하도록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것이 일본놈들이 조작한 소위 《강화도조약》이였습니다.

《강화도조약》은 일본놈들이 조선에 대한 침략을 더 본격적으로 감행할수 있는 길을 열어준 강도적이며 침략적인 불평등《조약》이였습니다.

이 《조약》이 조작된 이후 일본침략자들은 더 활개를 치며 우리 나라에 쓸어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조선은 이때부터 일본놈들의 식민지로 점점 깊숙이 빠져들어갔습니다.

기울어져가는 나라의 운명을 걱정한 우리 인민들은 비겁한 봉건통치배들과 일본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제 25 과. 임오년의 군인폭동

침략적인 《강화도조약》을 강제로 꾸며낸 일본침략자들은 그것을 구실로 우리 나라에 쓸어들었습니다.

놈들은 서울 한복판에 《공사관》을 지어놓고 조선을 완전히 먹기 위한 책동을 로골적으로 감행하였습니다.

일본놈들은 대포로 무장한 군함들을 끌어들여 바다가를 싸다니며 우리 인민을 위협하는 한편 측량과 정탐행위를 감행하였습니다.

우리 나라는 일본놈들의 식민지로 한발자국 한발자국 빠져들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썩어빠진 봉건통치배들은 일본놈들의 침략을 막을 대신 그놈들앞에 더 굴복하면서 인민들만 못살게 굴었습니다.

인민들의 원한은 날을 따라 높아만 갔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람이 자기의 자주성이 침해당하는것을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은 응당한것입니다.》

더는 참을수 없었던 인민들은 일제놈들과 봉건통치배들을 반대

하는 투쟁에 떨쳐나섰습니다.

1882년 6월 서울에 있던 봉건국가군대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이 폭동을 일으킨것은 국가에서 군대에 대한 대우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기때문입니다.

그때 봉건정부가 13개월만에 어찌다 군인들에게 내준 한달분의 봉미는 그 량이 절반도 못되는데다가 거기에는 썩은 쌀, 겨, 모래 등이 많이 섞여있었습니다.

그것은 봉건통치배들이 중간에서 다 떼먹고 모자라는것을 메워넣기 위해서 그렇게 한것이였습니다.

그때 서울의 군인들은 대부분이 빈민출신으로서 가정을 가지고 서울주변에서 살면서 얼마 안되는 봉미를 받아 겨우 살아가는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였습니다.

때문에 군인들은 봉건통치배들이 준 그 한심한 봉미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살아갈수가 없게 되였습니다.

굶어죽을 처지에 빠지게 된 군인들은 더 참을수가 없었습니다.

쌀을 타러 왔던 김춘영, 류복만 등 군인들은 격분하여 쌀창고를 맡아보던놈을 때려눕혔습니다.

이것은 착취자들에게 내린 응당한 징벌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건통치배들은 투쟁에 앞장섰던 군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인차 죽여버리겠다고 고아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서울시안의 수천명의 군인들은《이왕 죽을바에야 원한을 풀고 나라를 위하여 큰 일을 하고 죽자!》고 웨치면서 폭동에 떨쳐나섰습니다.

이리하여 서울 군인들은 6월 9일에 드디여 폭동에 궐기하였습니다.

격노한 군인들은 먼저 악질장교들을 잡아 처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싸움을 더 크게 벌리기 위하여 무기고를 까부시고 모두 무장을 갖추었습니다.

다음 폭동군인들은 감옥을 들이치고 죄없이 갇히워있던 군인동료들과 인민들을 석방하였으며 쌀창고를 헤쳐 병사들과 인민들에게 쌀을 나누어주었습니다.

그 이후 폭동군인들은 대오를 두개로 나누어 행동하였습니다.

그중 한 대오는 일본놈들이 도사리고있는 일본 《공사관》으로

몰려갔습니다.

많은 서울시민들이 달려나와 군인들과 힘을 합쳤습니다. 대오는 어느덧 5 000여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기세충천한 폭동군은 일본《공사관》을 포위하고 총과 활을 쏘고 돌을 던지면서 저녁 늦게까지 투쟁을 세차게 벌렸습니다.

공사놈을 비롯한 일본놈들은 겁에 질려 벌벌 떨다가 밤이 되자 《공사관》에 불을 지르고 인천을 거쳐 제놈의 나라로 도망쳤습니다.

폭동군의 다른 한 대오는 악질관리들의 집을 차례로 습격하여 모조리 파괴하고 여러명의 관리들을 처단하였습니다.

폭동군인들은 다음날 왕이 틀고앉아있던 창덕궁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나라의 권력을 틀어쥐고있던 민비를 처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폭동군인들은 아쉽게도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교활한 민비가 궁녀(왕궁에서 심부름하는 녀자)의 옷을 갈아입고 왕궁을 빠져나와 달아났기때문이였습니다.

그러나 폭동군인들은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들은 이틀동안에 10여명의 일본놈들을 처단하고 그 두목이였던 일본공사놈을 서울에서 쫓아냈으며 봉건국가의 많은 악질관리들을 처단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폭동이 완전히 승리한것은 아니였습니다.

아직 민비를 비롯한 봉건통치배들이 그냥 살아남아있었고 일본놈들이 다시 쳐들어올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폭동군인들은 이런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리하여 투쟁을 멈추고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고있었습니다.

이때 왕궁에서 몰래 빠져나와 충주에 가 숨어있던 민비는 청나라(봉건중국)군대를 끌어들여 군인폭동을 진압할 꿍꿍이를 꾸미였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3 000여명의 청나라침략군대와 1 500여명의 일본침략군이 쓸어들어왔습니다.

폭동군인들앞에는 큰 위험이 닥쳐왔습니다.

치렬한 싸움은 이틀동안이나 계속되였습니다.

폭동군인들은 청나라군대를 맞받아 용감히 싸웠으나 적들에 비해 력량이 너무 약하였기때문에 실패하고말았습니다.

이처럼 군인폭동은 비록 실패하였으나 일제침략자들과 봉건통치배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제 26 과. 김옥균과 갑신정변

1884(갑신)년 우리 나라에서는 락후한 봉건사회대신에 그보다 발전한 자본주의사회를 세우려고한 정변이 일어났습니다.

그 정변을 지도한 사람은 김옥균이였습니다.

그때 김옥균은 봉건국가의 높은 관리였습니다.

김옥균은 처음에 자기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을 많이 모아 개화파라는 집단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힘으로 봉건국가의 낡은 통치기구를 신식으로 하나하나 고쳐나갔습니다.

물론 군대도 신식군대로 조직했습니다.

청년들을 발전된 나라에 류학도 보냈습니다.

그러나 김옥균을 비롯한 개화파의 이러한 진보적인 활동은 썩어빠진 봉건통치배들이 가로막아나서므로 평화적방법으로 그 목적을 실현할수 없었습니다.



김옥균

새 사회, 새 세상을 세우려는 커다란 포부와 뜻을 가진 김옥균은 마침내 반동들을 정변의 방법으로 쳐없애고 정권을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여 김옥균은 무장정변이라는 어마어마한 결심을 내리였습니다.

김옥균의 지도밑에 개화파는 무장정변준비를 다그쳤습니다.

지방에 있던 개화파들을 서울에 모이게 하고 군대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김옥균자신은 왕을 자주 만나 세계발전추세에 맞게 락후한 봉건제도대신 새로운 발전된 사회를 세우자고, 그를 위해 투쟁하는 자기들의 활동을 지지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왕은 세상이 어떻게 되든 왕자리만 내놓지 않으면 된다는

립장으로써 그들의 활동을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준비를 갖춘 개화파들은 마침내 1884년 12월 4일(음력 10월 17일)에 봉건정부를 뒤집어엎고 새 정부를 세우기 위한 정변을 일으켰습니다.

이날 김옥균은 미리 짜놓은 계획대로 큰 연회를 차리고 수구파량반들을 초청해왔습니다.

개화파들은 연회가 한창 벌어지고있을 때 옆에 있는 집에 불을 지르고 그 불을 끄러나가는 수구파량반들을 죽여버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김옥균은 그달음으로 국왕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왕의 명령으로 수구파량반들을 왕궁으로 불러들이게 하였습니다.

개화파들은 왕의 부름을 받고 왕궁으로 찾아오는 수구파의 관리들을 처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수구파의 봉건정부는 무너지고말았습니다.



개화파의 정강발표

김옥균을 비롯한 개화파는 새 정부를 세우고 그에 대하여 온 세상에 선포하였습니다.

새로 선 개화파정부는 앞으로 새 정부가 해나갈 일들을 밝힌 정강을 발표하였습니다.

정강에는 앞으로 나라를 봉건국가보다는 한걸음 발전한 자본주의국가로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가 밝혀져있었습니다.

개화파들이 비록 착취와 압박이 없는 인민을 위한 나라를 세울데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였으나 우리 나라를 한걸음 더 발전시켜 침략자들이 덤벼들지 못하도록 강한 나라로 만들려고 한것은 매우 잘한것이였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봉건통치배들이 개화파정부를 뒤집어엎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있었습니다.

놈들은 청나라침략자들과 손을 잡고 개화파들이 자리잡고있던 왕궁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아직 튼튼한 방비대책을 세우지 못하고있던 개화파들은 얼마 안되는 군대를 가지고 1 500여명의 청나라침략군과 싸워야 하였습니다.

개화파들은 용감히 싸웠으나 엄청나게 많은 적들을 이겨낼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개화파의 새 정부는 세워진지 3일만에 무너지고말았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아버지는 김옥균의 정변이 〈3일천하〉의 운명을 면치 못한 주요한 원인의 하나는 개혁파들이 백성들의 힘을 믿지 않고 궁정내부세력에만 의거한데 있다고 하면서 그들의 실패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였다.》

갑신정변은 결국 김옥균을 비롯한 개화파들이 인민대중의 힘을 믿지 않고 그들을 투쟁에 불러일으키지 못한 결과 실패하였습니다.

갑신정변은 이처럼 쓰라린 교훈을 남기고 실패하였으나 그후 우리 나라에서 봉건제도를 반대하고 새로운 사회제도를 세우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떠밀어주었습니다.

제 27 과. 애국에 피를 바친 전봉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 1894년에는 전라도농민들이 봉건통치배들의 악정을 반대하여 농민전쟁을 벌렸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년전인 1894년 우리 나라 남쪽땅 전라도지방에서는 전봉준의 지도밑에 큰 농민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력사에서는 갑오농민전쟁이라고 합니다.

농민군은 썩어빠진 봉건통치를 바로잡아 나라를 튼튼히 하고 인민들을 비참한 생활에서 건져낼데 대한 투쟁목표를 내세웠습니다.

농민군은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봉건통치배들을 무자비하게 족치며 세력을 넓혀나갔습니다.

농민전쟁이 일어나 얼마 안되여 농민군은 전주를 비롯한 오늘의 전라남북도와 충청남북도의 넓은 지역을 차지하였습니다.

농민군은 점령한 지역들에서 악질관리들을 처단하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쌀과 물건을 나누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농민군은 짧은 기간에 몇십만으로 늘어났습니다.

기세충천한 농민군은 서울까지 쳐들어가 나라를 팔고 인민을 못살게 구는 봉건통치배들을 모조리 쳐부시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농민군의 투쟁은 쉽게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일제침략자들이 농민전쟁을 구실로 많은 군대를 끌고들어와 농민군진압에 미쳐날뛰였기때문이였습니다.



인민들에게 쌀을 나누어주는 농민군

일제침략자들은 농민군진압을 계기로 봉건통치배들을 손아귀에 튼튼히 틀어쥐고 조선을 완전히 먹으려고 우리 나라에 1만여명의 군대를 끌고 기여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썩어빠진 봉건통치배들은 일제침략군을 조선에서 내몰 대신 오히려 놈들과 힘을 합쳐 농민군진압에 날뛰였습니다.

이것은 농민들의 가슴을 원쑤들에 대한 증오로 불타게 하였습니다. 농민군은 봉건통치배들과 일제침략자들을 모조리 쳐부실 결의를 다지였습니다.

전봉준의 지휘밑에 수만명의 농민군은 1894년 11월 20일부터 공주로 진격하였습니다.

그때 공주에는 일제와 봉건통치배들이 농민군의 서울진격을 막기 위하여 수많은 토벌군을 배치해놓고있었습니다.

농민군은 적들을 무찌르며 공주를 완전히 포위하였습니다.

공주주변의 산들은 모두 농민군이 차지하였습니다.

농민군의 드세찬 기세에 바빠맞은 일제침략자들은 더 많은 군대를 끌어다 힘을 보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공주에서는 이 농민전쟁의 마지막을 장식한 큰 전투가 벌어지게 되였습니다.

드디여 농민군은 총 공격을 시작하였습니다. 성난 파도와 같이 진격하는 농민군의 대오는 산과 들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적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일제침략군놈들은 산에 의거하여 대포와 총으로 집중사격을 퍼부었습니다.

놈들에 대한 증오심으로 가득찬 농민군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적진을 향해 용감히 돌진하였습니다.

가렬한 싸움은 한나절이나 계속되였습니다.

농민군은 적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으나 놈들의 진지를 점령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농민군은 일시 뒤로 물러나 대오를 정비하면서 새로운 공격준비를 갖추었습니다.

며칠후 농민군은 또다시 제2차 총 공격을 시작하였습니다.

농민군은 길 하나, 봉우리 하나를 놓고도 피어린 싸움을 벌렸습니다.

어떤 때는 한곳을 놓고도 40～50차례의 공격전을 벌리기도 하였습니다.

피어린 싸움은 여러날 계속되였습니다. 이 싸움의 나날에 농민군도 많은 손실을 입었습니다.

농민군의 제2차 공격도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근 20일동안이나 계속되였던 공주에서의 격전은 농민군의 실패로 끝나고말았습니다.

농민전쟁이 실패한 뒤 농민군에 대한 야수적학살이 감행되였습니다.

일제와 봉건통치배들은 의로운 투쟁에 나섰던 농민군을 역적으로 몰아 닥치는대로 잡아죽이였으며 그의 가족들에게까지 참혹한 형벌을 들씌웠습니다. 농민군의 지도자 전봉준도 변절자의 밀고로 적들에게 체포되여 갖은 고문을 받던 끝에 무참히 학살당하였습니다.

이처럼 공주전투를 마감으로 하여 농민전쟁은 비록 실패하였으나 농민군의 용감한 투쟁은 일제와 봉건통치배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으며 우리 인민들을 더 큰 투쟁에로 불러일으켰습니다.

제 28 과. 민비살해사건

민비살해사건이란 일제침략자들이 리조봉건국가의 왕궁을 무력으로 점령하고 고종왕의 안해인 민비를 잔인하게 학살한 사건을 말합니다.

민비살해사건을 감행함으로써 일제는 조선에서 영원히 씻을수 없는 또 하나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때가 1895년 10월이였습니다.

이무렵 제국주의침략자들은 조선을 가운데 놓고 저마다 먼저 먹어보겠다고 경쟁적으로 날뛰고있었습니다.

그가운데서도 가장 악랄하게 발악한것은 일제침략자들이였습니다.

일제는 조선을 독차지하기 위하여 청나라와 전쟁을 벌려 그를 조선에서 몰아내고 조선침략에서 가장 우세한 세력으로 되였습니다.

이런 조건을 리용하여 일제는 조선봉건정부를 자기 손아귀에 틀어쥐고 제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로씨야를 비롯한 다른 제국주의침략자들은 이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로씨야는 다른 제국주의침략자들과 손을 잡고 일제에게 압력을 가하여 조선에서 지나치게 세력을 넓히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일제는 할수없이 한발자국 물러서지 않을수 없게 되였습니다.

이리하여 일제의 세력은 좀 약해지고 그대신 로씨야가 조선에

서 우세한 세력으로 나타나게 되였습니다.

이러한 때 썩어빠진 봉건통치배들은 제 힘으로 나라의 독립을 지킬 생각은 하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다른 나라 세력에 매달려 끊어져가는 마지막명줄을 이어보려고 하였습니다.

한때 청나라에 붙어 목숨을 유지해오던 봉건통치배들은 청나라가 조선에서 밀려나게 되자 이번에는 일제의 새로운 경쟁자로 나타난 로씨야세력에 가붙기 시작하였습니다.

민비는 정부안에서 친일파들을 몰아내고 점차 로씨야와 가까이 지내자고 하는 친로파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일제에게 큰 불안을 주었습니다. 하루빨리 사태를 바로잡지 않으면 오래동안 준비해오던 조선침략계획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질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간악한 일제침략자들은 가장 악독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은 조선봉건정부의 실지 권력을 틀어쥐고있는 민비를 죽여없애는것이였습니다.

얼마후 서울에는 미우라라는 새로운 일본공사놈이 기여들었습니다. 사람잡이에 이골이 난 이놈은 서울에 기여들자마자 민비를 죽일 흉계를 꾸며나갔습니다. 그놈은 민비가 살고있는 왕궁안의 형편과 경비상태를 날날이 정찰하는 한편 왕궁습격에 내몰 일본《수비대》, 경찰 및 불량배들을 긁어모았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짰습니다.

1895년 10월 7일(음력 8월 19일) 밤 놈들은 드디여 행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공사놈의 지휘밑에 어둠을 리용하여 왕궁의 성밑까지 은밀히 접근한 일제의 강도무리들은 사다리를 놓고 성벽을 타고넘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왕궁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왕궁의 경비는 잘되여있지 못하였습니다.

때문에 놈들은 큰 싸움을 벌리지 않고 왕궁을 점령할수 있었습니다. 이리하여 고요히 잠자던 왕궁안은 갑자기 수라장으로 변하였습니다.

왕궁을 지키고있던 조선군대의 련대장을 무참히 학살한 일제의 한 강도무리는 국왕이 잠자는 방에 뛰여들었습니다. 강도놈들은 총칼을 마구 휘두르며 민비를 내놓으라고 국왕을 위협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일제의 다른 한 강도무리는 민비가 자는 방에 뛰여들었습니다.

놈들은 방안에 있던 궁녀들을 닥치는대로 죽이면서 민비를 찾으려고 날뛰였습니다.

놈들은 마침내 새벽녘이 되여서야 방 한구석에 숨어있던 민비와 2명의 시녀(민비의 시중을 들던 궁녀)를 발견하였습니다. 민비는 그때 목숨을 건져보려고 궁녀의 옷을 입고있었으므로 일제놈들은 처음에 그를 잘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야수와 같은 놈들은 곧 그들 세 사람을 밖으로 끌고 나와 칼로 내리쳤습니다.

세 사람은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이때 그중의 한 녀자가 민비라는것을 알아낸 일제강도무리들은 아직 완전히 숨지지 않은 그를 이불에 둘둘 말아 근방의 수림속으로 날라다가 장작더미우에 놓고 석유를 뿌려 불태워죽이였습니다.

그리고는 범죄의 흔적을 없애기 위하여 타다남은 뼈와 재가루를 주변의 못가에 처넣었습니다.

이 천인공노할 만행을 민비살해사건 혹은 을미사변이라고 합니다.

민비살해사건은 세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가장 야수적이며 강도적인 학살만행이였습니다.

이 사건은 일제의 강도적침략본성과 그 야수성을 똑똑히 보여주었으며 일제침략자들이야말로 조선침략을 위해서는 그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야수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민비살해사건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자 조선인민들은 일제에 대한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민비는 물론 인민들을 못살게 굴고 나라를 외세에 팔아먹는 반동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러나 일제침략자들이 남의 나라 왕궁에 쳐들어와 왕비를 죽이고 야수적만행을 감행한것은 우리 나라를 업수이 여기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짓밟는 범죄행위였습니다.

때문에 이 사건은 일제에 대한 조선인민의 민족적분노를 더욱 북돋아주었습니다.

민비살해사건이후 조선인민은 일제야수들을 반대하는 반일투쟁마당에 더 힘차게 떨쳐나섰습니다.

제 29 과. 강제로 꾸며낸 《을사 5 조약》

1905년도 저물어가던 11월초였습니다.

조선인민의 흉악한 원쑤이며 일본반동우두머리의 한놈이였던 이등박문이란놈이 서울에 기여들었습니다.

이때는 일본놈들이 로씨야와의 전쟁에서 로씨야를 누르고 조선에서 그 세력을 몰아낸 다음 수만명의 병력으로 우리 나라를 강점한 때였습니다.

일제는 침략무력으로 조선을 강점한 이 사실을 마치 리조정부와 합의하여 강점한것처럼 꾸미기 위한 《조약》을 만들어내는것이 필요하였습니다.

이등박문이 서울에 기여든것은 바로 이러한 《조약》을 리조정부와 맺자는것이였습니다.

일본놈들이 미리 꾸며가지고 온 《조약》초안의 내용은 조선이 다른 나라와 관계를 가지는것은 일본의 지휘, 감독하에서만 하며 일본의 승인없이는 다른 나라와 조약도 맺을수 없다는것, 조선은 일본놈이 《통감》으로 들어와 통치한다는것이였습니다.

그러니 조선인민, 조선의 관리들과 왕까지도 다 제놈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는것이였습니다.

이런 날강도적인 《조약》을 누가 맺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침략군대를 풀어 어마어마한 경비망을 펴놓고 서울에 기여든 이등박문놈은 먼저 리조봉건국가의 왕인 고종을 찾아가 일본왕놈의 《편지》를 전했습니다.

이 《편지》에는 조선이 일본의 《보호》를 받아야 나라와 왕실의 《안녕》이 보존될수 있다는 내용이 씌여져있었습니다.

그러나 《보호》요 《안녕》이요 하는 달콤한 말은 조선을 냉큼 먹어치우려는 제놈들의 속심을 가리우기 위한 속임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얼마후 또다시 고종을 찾아간 이등박문놈은 일본에서 미리 짜가지고 온 《조약》초안을 내놓으면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조약》초안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더

나쁜 결과가 차례진다고 위협하였습니다.

이것은 제놈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일본침략군대를 동원하여 왕궁을 들이치겠다는 수작이였습니다.

그때 서울에는 약 2만여명의 일본침략군대가 들어와있었습니다.

5 000년의 력사를 자랑하는 우리 나라가 일제의 더러운 발굽밑에 짓밟히느냐 마느냐 하는 참으로 위급한 순간이였습니다.

《조약》초안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조선은 완전히 일제의 식민지로 굴러떨어지기때문이였습니다.

그때 우리 조선인민은 누구나 다 일제가 강요하는《조약》을 반대하였습니다.

나라의 높은급 대신들속에서도 일본놈들과 《보호조약》을 맺는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깊은 생각에 잠겼던 고종은 이등박문에게 일본놈들의 제안을 접수하면 조선이 망하기때문에 절대로 받아들일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날 이등박문놈은 무려 5시간동안이나 고종왕을 위협도 하고 얼림수도 써보았지만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이등박문놈은 매우 안달이 났습니다.

그것은 그때 조선에서 다른 나라와 맺는 조약은 반드시 국왕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 옥새(왕의 도장)를 찍어야 조약으로 인정되였기때문이였습니다.

고종을 얼려넘길수 없다고 생각한 이등박문놈은 국왕을 밀어제끼고 조선봉건정부의 대신들을 위협하여 《조약》을 맺을 흉계를 꾸미였습니다.

이등박문놈은 먼저 서울에 2만여명의 침략군대를 풀어 어마어마한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왕궁을 2중3중으로 포위하고 각 성문에는 포를 비롯한 중무기들을 배치하여 당장이라도 쳐들어갈 태세를 보이였습니다.

이렇게 공포분위기를 만들어놓은 이등박문놈은 조선봉건정부 대신들의 회의를 열고 제놈들의 《조약》초안을 토의하게 하였습니다.

회의는 저녁 늦게까지 계속되였으나 결말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참정대신 한규설을 비롯한 일부 대신들이 일제의 요구를 완강히 반대하여나섰기때문이였습니다.

옆방에서 회의장안을 감시하고있던 이등박문놈은 일본군사령관

놈을 비롯한 몇몇 졸개들을 거느리고 회의장안으로 뛰여들었습니다.

남의 나라 대신들의 회의장에 무지막지하게 뛰여든 이놈은 리조봉건정부의 대신들을 한명한명 짚어가며 저들이 내놓은 《조약》초안을 받아들이라고 강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놈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 대신들은 회의장밖으로 강제로 끌어내였습니다.

이것은 세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날강도행위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전부터 일제의 앞잡이노릇을 해오던 매국역적 리완용을 비롯한 5명의 대신들만이 일제에게 나라를 파는 《조약》에 찬성을 표시하였습니다.

이등박문놈은 이것을 가지고 조선과 《조약》이 맺어졌다고 하면서 《조약》을 지지한 5명의 대신중 한놈을 시켜 《조약문》에 옥새가 아닌 다른 도장을 찍게 하였습니다.

1905년 11월 17일 일제놈들이 강제로 꾸며낸 《조약》은 5개조항으로 되여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약》을 《을사5조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리완용놈을 비롯한 이《조약》을 찬성한 다섯놈의 대신들을 《을사5적》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을사5조약》은 조선왕의 승인도 나라의 도장도 없이 일제가 강제로 꾸며낸 가짜《조약》입니다.

때문에 조선인민은 처음부터 《조약》을 조약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그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차게 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침략자들은 이 가짜《조약》을 내걸고 41년간이나 우리 나라를 제놈들의 식민지로 통치하면서 조선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웠습니다.

때문에 조선인민은 오늘도 일본침략자들에 대한 피맺힌 원한에 사무쳐있으며 놈들을 끝없이 미워하고있는것입니다.

제 30 과. 돌아오지 않은 밀사

일제침략자들은 1905년 가짜《조약》인 《을사5조약》을 강제로 꾸며낸 후 조선을 제놈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5 000년의 오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던 우리 나라를 빼앗긴 전체 조선인민은 슬픔을 금치 못해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조선인민은 일제를 반대하여 시위투쟁도 벌리고 의병대에 들어가 총을 잡고 싸우기도 하였습니다.

일부 애국적인 봉건관리들은 일제의 조선강점을 반대하는 뜻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놈들은 더욱 기승을 부리며 조선을 저들의 식민지로 튼튼히 틀어쥐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인 1907년 6월 네데를란드의 헤그에서는 만국평화회의가 열리였습니다. 만국평화회의는 제국주의자들이 《평화》의 간판밑에 약한 나라들을 침략하고 틀어쥐기 위한 꿍꿍이를 벌리는 곳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속을 잘 알지 못하고있던 조선의 일부 관리들은 만국평화회의에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들은 그 회의에 참가하여 조선을 강제로 식민지로 만든 일제의 죄행을 폭로하고 우리를 도와줄것을 호소하면 여러 나라 대표들이 조선을 적극 지지하고 동정해줄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되면 일제는 조선에서 쫓겨나게 되고 우리 나라는 독립될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봉건국가의 관리였던 리준, 리상설, 리위종 등 세 사람은 만국평화회의에 참가할것을 결심하고 준비를 다그쳐나갔습니다.

리준은 그때 조선왕이였던 고종을 만나 자기들의 결심을 이야기하고 조선의 대표라는것을 증명하는 신임장까지 받아쥐였습니다.

이 세 사람을 일제가 모르게 비밀리에 파견된 사신이라고 하여 밀사라고 하였습니다.

얼마후 목적지에 도착한 세 밀사들은 흥분된 마음을 안고 만국평화회의 의장을 찾아가 조선왕의 신임장을 내놓으며 조선의 대표로 회의에 참가하겠다는것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의장은 세 밀사를 회의에 참가시킬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벌써 조선의 밀사들이 도착한것을 냄새맡은 간악한 일본대표놈이 미국, 영국을 비롯한 제국주의나라 대표들과 미리 짜고 조선의 밀사들이 회의에 참가하지 못하게 방해를 놀았던것입니다.

회의에 참가할수 없게 된 세 밀사들은 앞이 캄캄하였습니다.

조선이 영영 독립되지 못할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만국평화회의장에 피를 뿌리는 리준

뜻을 이루지 않고서는 그냥 조선으로 돌아설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세 밀사들은 헤그에 있는 국제기자협회를 찾아가 일제의 죄행을 낱낱이 까밝히고 조선을 적극 도와줄것을 절절히 호소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곧 신문, 잡지들을 통해서 세상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자 만국평화회의에 참가한 여러 나라 대표들속에서도 조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번에도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방해책동으로 뜻을 이룰수 없었습니다.

적들과의 싸움에서 이길수 없게 된 리준은 비장한 결심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그는 가까스로 회의가 한창 진행되는 회의장안에 들어가 일제의 죄행을 폭로하고 그 자리에서 칼로 배를 가르고 피를 회의장안에 뿌렸습니다.

이렇게 리준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것으로 적들에게 항거해나섰습니다.

애국지사 리준이 뿌린 피는 회의장안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이 사건을 력사에서는 헤그밀사사건이라고 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만국평화회의장을 붉게 물들인 리준의 피는 후대들에게 세계의 그 어떤 강대국도 조선독립을 선사하지 않는다는것과 남의 덕으로는 나라의 독립을 성취할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경고해주었다.》

헤그에서 벌린 조선밀사들의 투쟁은 일제에 의한 조선강점의 비법성을 폭로하고 나라의 독립을 지키려는 조선인민의 불굴의 투쟁정신을 온 세상에 널리 시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투쟁은 응당한 열매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일제는 오히려 이 사건을 구실로 조선에서 식민지통치를 더 악랄하게 감행하였습니다.

헤그밀사사건은 세계의 그 어떤 강대국도 조선에 독립을 선사하지 않는다는것과 남의 덕으로는 나라를 독립시킬수 없다는것, 따라서 자기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오직 자기 힘을 믿고 모두가 떨쳐나 용감히 싸워야 한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제 31 과. 애국렬사 안중근

일제가 조선을 강점한 이후 우리 인민들은 나라잃은 슬픔으로 몸부림치고있었으나 옳은 투쟁의 길을 찾지 못하고있었습니다.

생명을 바쳐서라도 나라를 구원할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가 하고 모대기고있던 일부 애국청년들은 조선침략에 앞장섰던 일제의 우두머리놈들을 처단하는 길로 나갔습니다.

물론 이런 방법으로는 조선의 독립을 이룩할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탁월한 지도자를 만나지 못하여 옳바른 투쟁의 길을 찾지 못하고있던 애국청년들은 악질두목놈들만 처단해버리면 나라가 독립될줄로 믿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속에는 애국렬사 안중근도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안중근은 할빈역두에서 이등박문을 격살하고 독립만세를 웨쳐 조선사람의 기개를 과시하였다.》

안중근은 남달리 애국심이 강하였습니다.

황해도 해주에서 태여난 그는 어려서부터 성품이 곧고 나쁜짓을 하는것을 보고는 참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농민전쟁과 의병투쟁을 직접 보는 과정에 일제를 미워하게 되였고 그를 반대하는 투쟁에 몸바칠 생각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애국문화운동에 적극 참가하면서 남포지방에 학교를 세우고 학생청년들의 가슴속에 일제를 미워하는 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총을 다루는 법도 몰래 가르쳐주었습니다.

그후 그는 학생청년들을 중심으로 일제를 반대하는 의병부대를 무으려다가 놈들에게 발각되여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다른 나라로 몸을 피하였습니다.

그때 그곳에는 조선에서 독립운동을 벌리다가 일제의 탄압에 못이겨 몸을 피해 들어간 독립운동자들이 많았습니다.

안중근은 이 독립운동자들과 손을 잡고 일제를 반대하는 여러가지 활동을 벌렸습니다.

때로는 무장을 잡고 의병대의 참모총장으로 활동하면서 두만강을 건너 조선땅에 들어와 일제놈들을 습격처단하기도 하였으며 개별적원쑤들을 죽이는 개인테로활동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때인 1909년 10월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 이등박문놈이 짜리로씨야와 회담을 하기 위하여 중국의 할빈으로 간다는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안중근은 이 기회에 민족의 원쑤 이등박문놈을 죽여 우리 인민의 원한을 풀고 조선독립에 기여하리라 결심하였습니다.

그는 몇명의 동지들과 의논하고 준비를 철저히 갖춘 다음 할빈으로 떠났습니다.



이등박문에게 복수의 총탄을 안기는 안중근

10월 26일 할빈역은 아침부터 군대와 경찰들에 의하여 물샐틈 없는 경비망을 쳐놓았습니다.

그러나 안중근은 당당하고 태연한 자세로 놈들의 경비망을 뚫고 이등박문을 마중하러 나온 사람들속에 끼웠습니다.

정각 9시가 되자 이등박문놈이 탄 렬차가 천천히 역구내에 들어와 멎었습니다.

안중근은 울렁이는 가슴을 진정하며 주머니속의 권총을 슬며시 틀어쥐였습니다.

이윽고 민족의 흉악한 원쑤 이등박문놈이 렬차에서 내려 거드름을 피우며 그의 앞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안중근의 가슴은 원쑤에 대한 증오로 불탔습니다.

이때라고 생각한 그는 권총을 들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 탕, 탕 …》

복수의 총탄은 원쑤의 가슴팍을 련속 꿰뚫었습니다.

이등박문놈은 비명소리 한마디 변변히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꺼꾸러지고말았습니다.

민족의 원쑤를 처단한 안중근의 기쁨은 이루 말할수없이 컸습니다. 그는 두팔을 높이 추켜들고 《조선독립 만세!》를 목청껏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그는 곧 체포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놈들에게 끌려가면서도 자기의 당당한 자세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나라를 위해 품었던 큰 뜻을 이룩하였기때문이였습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자기의 지조를 굽히지 않고 적들을 반대하여 굴함없이 싸웠으며 제일강산이라는 글을 써붙이고 애국심을 키웠고 인내라는 두 글자를 쓰며 교형리들의 악형을 이겨나갔습니다.

그러다가 1910년 3월 일제놈들에 의하여 사형당하였습니다.

이처럼 안중근은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 귀중한 목숨을 바친 애국렬사입니다.

안중근에 의해 이등박문놈은 죽었으나 조선은 독립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안중근이처럼 몇몇 원쑤놈들을 처단하는 방법으로는 나라를 독립시킬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선은 옳은 투쟁의 길을 밝혀줄 탁월한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목마르게 기다리고있었습니다.

제 32 과. 반일의병대장 홍범도

우리 나라에서 반일의병투쟁은 1905년 일제가 조선을 강점한 이후 더욱 세차게 벌어졌습니다.

일찍부터 나라를 지켜 용감히 싸워온 우리 인민은 나라가 일제놈들에게 먹히운것을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병대에 들어가 무장을 잡고 일제놈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웠습니다. 날이 감에 따라 의병대의 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1907년말에 가서는 나라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의병투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의병투쟁을 벌리지 않은 지방에서는 그것을 큰 수치로 생각하는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때 무어진 의병부대중 함경남도지방에서 활동한 홍범도의병부대가 가장 맹렬하게 활동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유명한 의병대장인 홍범도는 자체로 쇠돌을 녹여 화승대를 만들고 철알을 부어가지고 왜놈들을 무찔렀습니다.》

홍범도의병부대는 1907년에 조직되였습니다.

의병부대안에는 산짐승을 쏘아잡는 포수들이 많았습니다.

의병부대를 조직한 홍범도자신도 이 지방에서 10년나마 포수를 한 사람이였습니다.

그는 평양 외성의 빈농가에서 태여나 한때 봉건국가의 군대에도 복무한적이 있었습니다.

홍범도의병부대는 모두가 용감했으며 총도 잘 쏘고 동작도 빨랐습니다.

또한 이들은 자체로 쇠돌을 녹여 화승대를 만들고 철알도 만들어썼습니다.



홍범도

홍범도의병부대는 적들과의 싸움에서 매번 승리하였습니다.

1907년 11월 25일이였습니다.

홍범도의병부대는 삼수 갑산쪽으로 들어오는 외통길목인 북청군 후치령에 매복하였습니다.

의병들을 치기 위하여 달려드는 일제 토벌대놈들을 족치기 위해서였습니다.

드디여 미야베중위놈이 지휘하는 일제 토벌대 1개 중대가 나타났습니다.

홍범도의병부대는 번개같이 달려들어 놈들을 단숨에 소탕해버렸습니다.

후치령전투의 빛나는 승리는 의병들의 사기를 크게 높여주었습니다.



후치령전투

이어 그해말에 진행된 삼수성방어전투에서도 홍범도의병부대는 또다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후치령전투에서 참패한 적들은 갑산, 혜산에 있던 수비대놈들까지 긁어모아 의병부대가 머무르고있던 삼수로 쳐들어왔습니다.

놈들은 삼수를 세면으로 포위하고 공격해왔습니다.

의병들은 적들에 비해 비록 뒤떨어진 무기를 가지고있었으나 정확한 사격과 날랜 동작으로 적들을 연방 쏘아눕혔습니다.

악에 받친 놈들은 세시간동안이나 집요하게 달려들었으나 의병

들의 총탄에 맞아 숱한 주검을 남긴채 도망치고말았습니다.

사기충천한 의병들은 다음날 적들이 도사리고있는 갑산읍을 공격하여 일제수비대놈들과 순사놈들 그리고 그 앞잡이놈들을 처단하였습니다.

홍범도의병부대는 그 이후에도 1909년까지 여러곳으로 재빨리 오가면서 거의 40차례나 전투를 벌려 일제침략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습니다.

때문에 그때 인민들은 홍범도의병부대의 눈부신 활동을 찬양하여 다음과 같은 노래까지 지어불렀습니다.

홍대장 가는 길에는 일월이 명랑한데
왜적군대 가는 길에는 눈과 비가 내린다
에헹야 에헹야 에헹 에헹 에헹야
왜적군대가 막 쓰러진다

홍범도의병부대는 그후 압록강을 건너 중국 동북지방에 가서 일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계속 줄기찬 투쟁을 벌리였습니다.

이처럼 홍범도가 지휘한 의병부대는 일제의 조선강점을 반대한 우리 인민의 투쟁력사에서 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제 33 과. 3.1 인민봉기

조선을 강점한 일제침략자들은 가장 악독한 식민지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일제놈들은 조선의 곳곳에 군대와 경찰, 감옥을 늘여놓고 우리 인민을 총칼로 억누르고 수많은 애국자들을 잡아가두거나 무참히 죽이였습니다.

놈들은 또한 우리 농민들의 땅을 모조리 빼앗고 공장과 광산을 독차지하였으며 나라의 귀중한 재물들을 닥치는대로 빼앗아 일본으로 실어갔습니다.

놈들은 지어 우리 말과 글도 쓰지 못하게 하고 조선력사와 조선지리도 배우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들의 가슴속에서는 일제침략자들에 대한 분노와 원한이 쌓이고 쌓였습니다.

이 민족적분노와 원한은 1919년 화산처럼 터지고야말았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1919년 3월 1일은 우리 민족이 〈일본인과 일본군대는 물러가라!〉, 〈조선독립 만세!〉의 구호를 소리높이 웨치면서 강도 일제를 반대하여 전민족적투쟁을 전개한 날이며 우리 민족이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준 날입니다.》

3월 1일 평양에서는 낮 12시에 종소리를 신호로 수천명의 청년학생들과 시민들이 장대재에 있는 숭덕녀학교 운동장에 모여들어 독립선언서를 랑독하고 조선이 독립국가라는것을 엄숙히 선포한 다음 《조선독립 만세!》, 《일본인과 일본군대는 물러가라!》는 구호를 웨치면서 격렬한 시위를 벌리였습니다.

만경대와 칠골 인민들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온 일가분들을 따라 이른 새벽부터 시위에 떨쳐나섰습니다. 떠날 때는 수백명이였는데 나중에는 수천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때 여덟살 나시던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시위대렬에 참가하시여 보통문앞까지 가시였습니다. 어른들의 걸음을 미처 따라잡을수 없으시였던 대원수님께서는 짚신을 벗어드시고 뜀박질로 대렬을 따라가시였습니다.

일제놈들은 기마경찰대와 군대들까지 동원하여 군중들에게 칼을 휘두르고 총탄을 마구 퍼부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흘리며 쓰러졌지만 군중들은 굴하지 않고 원쑤들과 육박전을 벌렸습니다.

해가 지고 날이 어두워지자 만경대인민들은 홰불을 들고 만경봉에 올라가 나팔을 불고 북을 치고 양철통까지 두드리며 독립만세를 불렀습니다.

어리신 대원수님께서도 어머님을 따라 만경봉에 올라가 만세를 부르시며 밤늦게까지 계시다가 내려오군 하시였습니다.

평양에서 치렬한 투쟁이 한창 벌어지고있을 때 서울에서도 수많은 인민들이 시위를 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3.1인민봉기

시위자들은 총칼로 앞을 막아나서는 일제침략자들과 맞서 용감히 싸웠습니다.

3.1인민봉기의 불길은 평양과 서울에 이어 강동, 남포, 원산, 의주 등 우리 나라의 모든 곳은 물론이고 일본, 중국, 로씨야 등 조선사람이 살고있던 세계의 여러 나라들에서도 타번지였습니다.

이 반일투쟁에는 로동자, 농민은 더 말할것도 없고 늙은이들과 어린이들까지도 모두 참가하였습니다.

그들은 총칼앞에서도 굴함없이 용감하게 잘 싸웠습니다.

특히 이 투쟁에서 청소년학생들은 남다른 용감성을 발휘하였습니다.

나어린 한 녀학생의 투쟁은 그것을 잘 말해줍니다.

군중시위가 벌어지자 손에 기발을 들고 대오에 참가한 한 녀학생은 시위대렬의 앞장에서 달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일제놈이 내리치는 칼에 오른팔이 잘리웠습니다.

그러자 그는 왼팔에 기발을 옮겨쥐고 계속 달려나갔습니다.

악에 받친 원쑤놈들은 또 달려들어 그의 왼팔마저 잘라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목숨이 지는 마지막순간까지 걸음을 멈추지 않고

《조선독립 만세!》를 소리높이 불러 일제놈들을 벌벌 떨게 하였습니다.

3.1인민봉기가 시작된 후 그해 말까지 전국각지에서는 3 200여차례의 시위와 폭동이 일어났으며 그 불길은 전국의 232개의 고을가운데서 3개를 제외한 229개의 고을을 휩쓸었습니다.

이처럼 거세차게 벌어진 3.1인민봉기는 일제침략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우리 인민들의 억센 투쟁앞에 질겁한 일제놈들은 3.1인민봉기를 짓누르려고 갖은 만행을 다하였습니다.

놈들은 군대와 경찰을 총동원하여 시위자들을 사정없이 칼로 찌르고 총으로 쏘아죽이였습니다.

3.1인민봉기 전기간에 일제야수놈들의 총칼에 맞아 쓰러진 조선사람의 수는 무려 10만여명이나 됩니다.

일제놈들의 만행으로 우리 조국강토는 그야말로 피바다에 잠기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민들은 일제놈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웠으나 나라의 독립은 이룩되지 못하였습니다.

3.1인민봉기는 인민들이 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위한 투쟁에서 승리를 이룩하자면 반드시 위대한 수령의 옳바른 령도를 받아야 한다는 심각한 교훈을 남기였습니다.

또한 3.1인민봉기는 조선인민은 일제의 식민지노예로 살기를 원치 않으며 나라를 찾기 위해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하고 애국심이 강한 인민이라는것을 온 세상에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제 34 과. 6.10 만세시위투쟁

일제침략자들은 3.1인민봉기에서 큰 타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를 조금도 늦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묘한 방법을 쓰면서 우리 인민들을 더 가혹하게 억압하고 착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일제를 반대하는 우리 인민의 반일투쟁기운도 점점 높아졌습니다.

나라의 여러곳에서는 일제놈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세차게 벌어졌습니다.

우리 인민들의 반일투쟁기운이 높아가고있는 가운데 우리 나라에서는 1925년 4월에 조선공산당이 창건되였습니다.

이때 창건된 조선공산당은 처음부터 많은 부족점을 가지고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일제놈들을 반대하는 우리 인민들의 투쟁에 적지 않은 힘을 주었습니다.

조선공산당은 인민들의 높아진 투쟁기세를 리용하여 다시 한번 큰 반일시위투쟁을 벌릴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이러한 때 리조봉건국가의 마지막왕이였던 순종이 사망하였습니다.

순종의 죽음을 계기로 조선사람들의 가슴속에는 나라를 빼앗아간 일제놈들에 대한 원한과 설음이 더 북받쳐올랐습니다.

지방과 서울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렇게 되자 일제놈들은 조선사람들이 모여 우는것조차 해산시키고 탄압하였습니다.

조선사람들의 슬픔과 분노는 반일투쟁기운으로 커갔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조선공산당은 순종의 장례식날을 계기로 큰 시위를 벌리면 성과를 거둘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 준비사업을 다그쳐나갔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시위투쟁위원회를 조직하고 비밀리에 5만여매의 삐라와 격문도 인쇄하였으며 사람들도 묶어세워나갔습니다.

드디여 순종의 장례식날인 1926년 6월 10일이 왔습니다.

장례행렬이 거리에 나오자 수만명의 서울시민들이 《조선독립만세!》, 《일본군대는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웨치면서 반일시위투쟁에 떨쳐나섰습니다.

일제에 대한 쌓이고쌓인 원한과 울분이 마침내 《독립 만세!》의 함성으로 힘있게 터져올랐습니다.

시위군중들은 삐라와 격문을 뿌리고 구호를 연방 부르면서 서울시내를 행진해나갔습니다.

열두어살안팎의 어린 학생들까지도 대렬을 짓고 시위투쟁에 떨쳐나섰습니다.

온 서울시내가 《독립 만세!》의 함성으로 끓어번졌습니다.

시위자들은 군중을 해산시키며 체포하려고 덤벼드는 일제경찰

놈들을 맨 주먹으로 때려눕히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당황한 일제침략자들은 군대와 경찰들을 내몰아 반일시위군중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놈들은 칼을 휘두르고 총을 마구 쏘아대면서 시위자들을 사정없이 죽이고 잡아갔습니다.

이날 놈들은 160여명의 시위자들을 죽이거나 부상을 입혔으며 200여명을 체포하는 만행을 감행하였습니다.

이날 인천을 비롯한 일부 지방에서도 《독립 만세!》 시위투쟁이 벌어졌습니다.

시위자들은 맨 주먹으로 일제놈들과 맞서 용감하게 싸웠으나 일제의 탄압을 이겨내지 못하고 끝내 해산되고말았습니다. 그것은 이 투쟁을 지도한 공산당이 인민들의 시위투쟁을 잘 이끌지 못하였기때문이였습니다.

그러나 6.10만세시위투쟁은 3.1인민봉기 이후 그때까지 있어보지 못한 가장 큰 투쟁으로서 일제놈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6.10만세시위투쟁은 비록 실패하였으나 일제놈들을 내쫓고 나라를 반드시 찾고야말 우리 인민들의 굳은 결심을 온 세상에 널리 시위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민들의 투쟁을 옳바로 이끌어나갈 위대한 수령의 령도를 받는 강한 당이 없이는 악독한 일제를 쳐부실수 없으며 나라도 독립할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조선력사(중학교 제2학년용)
3판

집 필 박사 리태영, 염창진　　심 사 심의위원회
편 집 리명철　　그 림 리용옥
장 정 류명심　　교 정 김정희
콤퓨터편성 김은아

낸 곳 교육도서출판사　　인쇄소 교육도서인쇄공장
3판 인쇄 주체97(2008)년 9월 19일　　3판 발행 주체97(2008)년 9월 29일

교—07-431　　값10원